1957. 3

3·1 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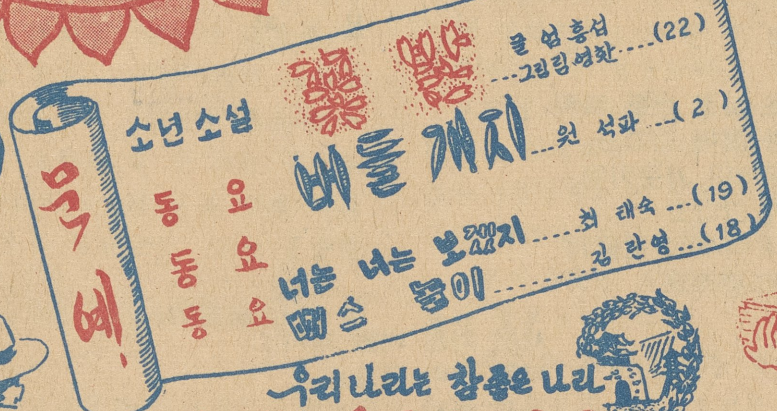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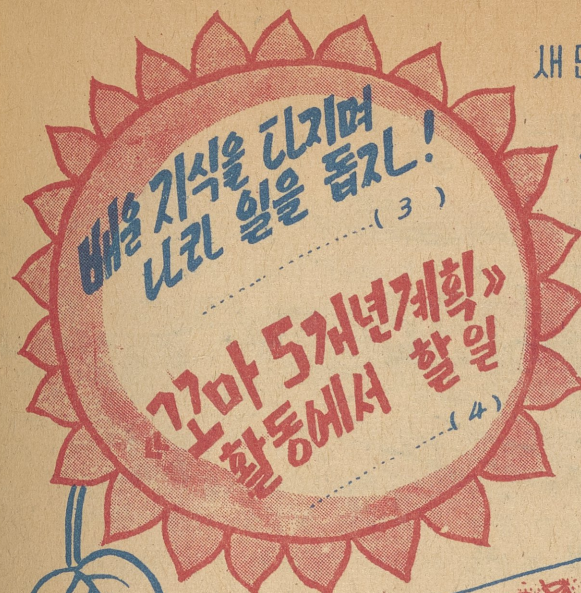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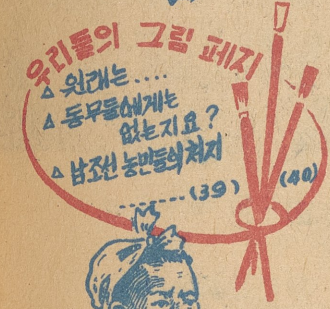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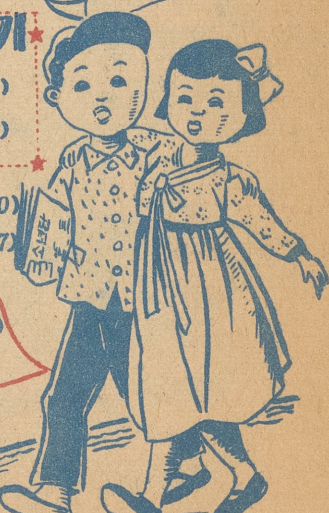
정현웅 그림

앞표지… 우량 종자를 고른 다음에는 …… 김창규 촬영

뒤표지… 산과 들을 푸른 락원으로! …… 안정수 그림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소년단 1957. 3

내용

목차 장정 장윤산

버들 개지

원 석 파

새옷 차린 버들 개지
바람 목마 타고요,
나무마다 기웃기웃
봄이 왔다고
어서 어서 아름답게
꽃이 피래요.

새옷 차린 버들 개지
바람 목마 타고요,
산새 둥지 기웃기웃
봄이 왔다고
어서 어서 나와서
노래 하래요.

새옷 차린 버들 개지
바람 목마 타고요,
마을마다 기웃기웃
봄이 왔다고
어서 어서 밭 갈고
씨 뿌리래요.

배운 지식을 다지며 나라 일을 돕자!

지금 공화국의 전체 소년단원들은 우리 나라의 제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 완수를 훌륭히 도울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커다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이 실지 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훌륭히 쓸모 있게 다지게 하며 학교와 마을, 공장과 거리에서 항상 애국 선렬들의 혁명 정신을 본받아 조국을 사랑하며 로동을 즐기고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하는 동시에 튼튼한 몸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며 특히 제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천에 나선 부모 형님들을 돕는 훌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이 활동을 훌륭히 해 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년단 단체들과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이 창립된 첫날부터 조국의 평화적 건설을 돕기 위하여,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을 돕기 위하여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해 왔으며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민청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소년단원들의 이 애국적 활동의 빛나는 전통을 살리여 그것을 전체 소년단원들 속에서 더욱 널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소년단 대, 분단, 반들에서는 소년 단원들에게 이 활동의 내용을 잘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 내놓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의 기본 내용에 근거하여 자기 지방과 학교 그리고 가정 등 사정에 알맞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낼 수 있으며 계절과 시기에 맞추어 여러가지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얼마나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소년단 대, 분단, 반 모임들에서 널리 의논하여 정해야 합니다.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은 하는 일에 따라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활동에서 계획을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경쟁을 걸거나 《책임량》을 정해 주어서 학습과 건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은 소년단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은 배운 지식을 사회주의 건설에 쓸모 있도록 다지며 소년 단원들을 훌륭한 애국자로 교양하는 일로 되여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매개 소년단 대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학과 학습과 각종 크루쇼크 활동 등 소년단의 모든 사업이 전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도록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 분단, 반 또 누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잘 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어떻게 잘 다졌으며 모든 소년단 생활이 어떻게 활발해졌으며 학교나 지방 실정에 맞게 이 활동을 했는가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다 학과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하면서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제1차 5개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힘껏 도웁시다.

《꼬마5개년 계획활동》에서 할일

1, 기본 생산 기술을 더 잘 배우기 위하여.

△ 인민 학교에서는

ㄱ, 공작 과목에 필요한 수공, 목공 등 공작 도구와 재료 갖추는 일을 돕는다.

ㄴ, 자연'과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한 실습지 가꾸기를 돕는다.

ㄷ, 학과 학습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표본, 모형. 괘도, 지도, 실험 기구 갖추는 일을 돕는다.

△ 초급 중학교에서는

ㄱ, 물리, 화학 실험실 꾸리기를 돕는다,

ㄴ, 생물 과목에 나오는 각종 생물의 관찰 및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실습지 설치를 도우며. 선진 영농법에 의한 각종 농작물을 심어 가꾼다.

ㄷ, 공작실 설치를 도우며 철공, 목공에 필요한 기구들을 갖춘다.

2, 식물 재배와 채취, 폐품 회수, 모피 모으는 일.

ㄱ, 학교와 집 주변, 발뚝, 야산, 산기슭, 도로 연변들에 피마주, 해바라기등 유지 작물을 재배하며 피마주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살구씨, 복숭아씨, 림목 종자 등을 모은다.

ㄴ, 수세미외, 오미자, 삼지구엽초, 버섯, 도라지, 도토리, 송진, 풍엽 등 식물을 채취한다.

ㄷ, 닭털, 오리털, 게사니털, 동물 뼈, 조개깍지, 고기 비늘 등을 모은다.

ㄹ, 파고무, 누데기, 파지, 파철, 동합금 등 폐품을 수집한다.

ㅁ, 토끼, 다람쥐, 족제비, 산서피 등 모피를 수집한다.

3, 우리들의 건강과 체력을 키우며 위생 방역 사업을 진행한다.

ㄱ, 학교와 집 주변, 마을과 도시를 일상적으로 청소 미화하며 자기 몸을 단정히 한다.

ㄴ, 우리들의 몸에 있는 회충을 구제하며, 조기 체조를 실시하며,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에 광범히 합격하도록 한다.

ㄷ, 학교의 체육 기자재 정비를 방조한다.

ㄹ,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해를 주는 파리, 모기, 쥐들을 잡아 없앤다.

ㅁ, 토질 풍토병을 예방하며 지스트마 균이 있는 지방들에서는 강'가에 있는 게, 가재, 골뱅이 등을 잡아 없앤다.

4, 학교 주변과 마을과 도시와 산야를 록화하기 위한 식수 및 산림 보호 사업을 진행한다.

ㄱ, 도로수 및 위생림을 만들며 관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집 주변, 마을, 길'가, 강'가, 제방 등에 백양나무, 버드나무, 아까시야, 뽕나무 등을 심으며 그를 잘 보호한다.

ㄴ, 산림을 보호하며 방풍림을 만들며 소년단 보호림을 정하고 잘 가꾼다.

ㄷ, 학교 주변에 소공원과 화단을 설치한다.

ㄹ, 집 주변과 야산에 사과, 대추, 복숭아, 포도, 밤, 감, 살구 등 과수목을 재배한다.

5, 자기 가정과 농업 협동 조합을 돕는 일을 한다.

ㄱ, 씰로스 생산과 풀베기, 제초, 이앙, 추수 등 사업을 도우며 이삭 줏기를 한다.

ㄴ, 가정과 농업 협동 조합을 도와 닭, 오리, 토끼 등 가금 가축을 키운다.

ㄷ, 제비, 따따구리, 뻐꾸기, 부엉이 등 익조를 보호한다.

ㄹ, 방울새, 까마귀 등 해조를 잡아 없앤다.

ㅁ, 늦벌레, 진두물, 무당벌레, 흰나비 등 해충을 잡아 없앤다.

ㅂ, 유치원, 탁아소의 어린이들에게 놀음'감을 만들어 주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준다.

6,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하고 있는 민청원들을 도와 자기 가정과 마을에서 《꼬마 선전원》의 일을 한다.

ㄱ, 문화 계몽 선전을 진행한다.

ㄴ, 보건 위생 선전을 진행한다.

ㄷ, 학교에서 배운 자연 과학 지식을 선전한다.

7, 우리 나라의 력사적 유물, 유적들과 명승 고적들을 애호하며 애국 렬사들과 인민군 장병 전사자들의 묘지와 쏘련군,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 전사자들의 묘지들을 정리 미화하며 애국 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 가족들을 도와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새생활 꽃피는 협동 마을에서

※—평남 안주군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을 찾아—※

멀리서 바라 보기에는 너무도 고요하여 보이던 마을이 정작 마을 어구에 들어서 보니 모든 것이 움직임 속에 살고 있었으며 그 움직임으로 하여 온 마을은 번거러운 소리로 꽉 차 흘렀습니다.

기계 도는 소리—이것은 정미소에서 쌀을 찧는 소리입니다. 톱질하는 소리, 마치 소리—이것은 바로 관리 위원회 앞에 있는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켜는 소리였으며 《남칠 제3호》고기 배를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길이 57자나 되는 큰 배가 거의 완성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조합에서 부업으로 하는 고기 잡이 배였습니다.

이처럼 흥성거림에 맞추어 조합원들은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틀의 문짝에 유리를 맞춰 모판에 덮고 벼 종자를 소금 물에 씻어 호르마링 소독을 하며 조합원들은 랭상모판 준비에 분주하였습니다.

《자, 일'손들을 재이게, 얼른 얼른들 해야지. 봄날에 하루 게으르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나!》.

환갑을 앞둔 서 찬성 할아버지가 젊은 이들을 재촉합니다 .

《할아버진 굶는 얘기는 왜 하세요. 그건 다 옛날 이야긴데, 봄날 하루 더 일하면 겨울에 열흘 더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수 형님이 웃으며 말하자

《자넨 늘 내 말이라면 포 장 잡기 잘하네 그려》.

《넘겨 짚는다고나 하시지, 장기를 잘 두시는 분이 다르신데요》.

《하여튼 빨리들 하게, 모를 빨리 내자고 랭상모를 하는데 랭상모판을 하면서 일을 늦게 해야 되겠나, 얼른 얼른들 하게》.

《할아버지, 랭상모란 옛날엔 없었지요》.

재수 형님이 빙정대며 또 말을 꺼냈습니다.

《또 그 이야긴가, 아예 그만 두게, 작년엔 늙은게 좀 고집 부려 봤지, 해보니 쌀 많이 거두었지, 수상님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 랭상모 그 다음에 륙상모, 마지막에 수모, 이렇게 순서 대로 모내기 하니 일도 몰리지 않고 헐하지, 이런 좋은 걸 왜 안하겠나. 금년엔 내가 그래도 늙은이들께 선전했다네, 발벗고 하자구…》.

《할아버지까지 그러시는 것을 보니 금년엔 정당 평균 5톤은 념려 없군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로력 영웅 전 성복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웃음을 지으며 말참견하였습니다.

《그럼 념려 없지, 5톤 이상을 내야 하지,

작업반 모임에서 모두들 그렇게 결의하지 않았소》. 할아버지는 특히 이상이라는 말에 힘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 조합에서는 지난 해 랭상모를 심은 60정보의 논에서 정당 9톤 500이라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흥겨운 일터에서 돌아서면서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바로 저 할아버지가 우리 조합에서 분배 몫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알곡 167가마니에 2만 여원의 현금을 받고 재봉기도 사고 시계도 샀습니다》 하시며 나에게 조합 살림이 늘어 가는 이야기를 들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난 때 《안주 지주》의 땅을 부치며 갖은 고생을 겪어오던 분들이고 지난 전쟁 때 알몸만 남은 농민들이였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 원쑤 놈들은 이 마을을 송두리채 부셔 놓았습니다.

농량이 부족한 농민이 70%였고 집도 가축도 없었습니다.

정전이 되자 50세대나 되는 이주민까지 또 빈 주먹으로 왔었답니다.

로력이라야 거의가 녀성이였고 한 로력이 3,350평의 땅을 다루어야 했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1954년 3월 21일 처음으로 98세대가 모여서 조합을 무었습니다.

한대의 우차, 4대의 새 농기계, 두마리의 발갈이 소—이것이 조합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조합에도 따뜻한 손'길을 돌려 주셨답니다.

32톤의 식량, 3.8톤의 종곡, 39톤의 비료, 2,900명의 로력 협조, 143만원의 영농 자금, 이것 뿐이 아니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농기계 임경소를 세우고 기계로 땅을 갈아 주었습니다.

《나라의 신세만 지고 가만이 있겠는가 힘껏 일하자, 그리고 배려에 보답하자》.

전체 조합원들은 국가의 따뜻한 배려에 더욱 고무되면서 식량 증산에 일떠섰습니다.

서로 도와 주며 도움을 받으며 힘든 일은 서로 앞장서 하며 이렇게 하는 기쁨이 날로 커져 갔습니다.

한집 두집이 품앗이 하여 일하는 것도 혼자 일하기보다 퍽 헐하였는데 수백명이 합친 힘은 더욱 컸고 일자리는 푹푹 났습니다.

젊은 일'군은 늘 늙은 분들의 앞장섰고 할아버지들은 쉬운 일을 맡는 등 힘에 알맞는 일들을 하며 화목하고 웃음 꽃 피는 큰 가정을 이루고 일했습니다.

농사도 잘했고 또 일'손을 잘 짜서 배를 만들어 한편 고기 잡이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밥상 우에는 고기 반찬이 오르고도 수백만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새 생활의 꽃이 피여 났습니다.

첫해가 지나고 협동 조합이 잘 되여 가는 것을 본 50호의 개인농들이 나도 나도 하고 앞을 다투어 조합에 들어 왔습니다.

그후 3년, 바로 지난 해입니다.

조합 식구가 두배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해에 3년 먹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로력 일당 7.7키로그람의 알곡과 20원의 현금이 차례졌습니다.

조합에는 새로 정미소가 섰고 유치원, 탁아소, 식당, 구락부, 병원, 리발관이 섰습니다. 168세대에 시계가 걸렸고 112세대에서 재봉기 소리가 들립니다.

안주 제2중에 다니는 아주 가난하던 김양건이 어머니는 혼자서 40가마니의 알곡에 만원 가까운 현금을 분배 받아 네 식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였답니다.

어느 집에나 분배 받은 알곡 가마니가 산'더미 처럼 쌓여졌습니다.

《알몸 뿐이던 농민들이 정말 〈부자〉가 되였지요》. 전 성복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락부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는 영농 기술 크루쇼크원들이 전 성복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랭상모판 설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여 있지요?》. 관리 위원장이 묻

는 말에 민청 위원장은 《우리보다 저 어린 손님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요》 하고 구락부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관으로는 몇몇 소년단원들이 와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남철 인민 학교 소년단원들이였습니다.

《오! 어린 손님들이 또 오셨군, 마침 잘 됐소. 오늘은 민청 형님들과 함께 배웁시다》.

소년단원들을 반가이 맞으며 관리 위원장은 랭상모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래일은 우리 학교 랭상모 붓는데 와 주세요》.

《꼭 가고 말고》.

집으로 돌아가며 소년단원들이 관리 위원장과 주고 받는 약속이였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었습니다.

구락부를 나서며 로력 영웅 전 성복 아저씨는 마을 앞 언덕진 곳을 가리키며 《바로 저곳에 이 마을이 옮겨집니다.

래년 봄에 한번 더 와 보십시요. 그때에는 98세대의 벽돌집이 일어설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물을 먹게 되고 세탁소도 세

◇이 협동 조합 마을에 지을 벽돌집 설계도◇

우고 유선 방송도 듣게 됩니다. 금년에 3만평의 논을 늘굴 관개 공사도 하고 알곡을 작년보다 49%나 더 내게 될테니 우리 마을은 황금 마을이 될것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은 더욱 흥성거렸습니다. 조합원들이 마지막 일'손을 재이며 부르는 노래 소리가 넓은 벌에 울려 퍼지는 것이였습니다.

글 리 종 근

그림 현 재 덕

3·1 운동 참가자의 수기

투쟁의 길

◇

조국 보위 후원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 장 해우

◇

어슬어슬한 저녁때였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문득 나의 이름을 찾는 뜻하지 않은 부름에 나는 문밖으로 나왔다.

얼굴 색이 거므스레한 농민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행길로 데리고 나와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회익이요?》 (어렸을 때 이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인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함부루 말해선 안되요》 하더니 잠간 있다가 《당신도 보는 바와 같이 왜놈들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요. 인제 3월 1일에 우리는 조선 땅에서 왜놈들을 몰아 내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였소. 그날 읍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는 어데서 왔는지 또 어데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그는 가버리고 말았다. 이 일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8년전인 1919년 3·1 독립 운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나의 고향인 함남도 북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19세였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십여리나 떨어져 있는 친한 강신이란 동무를 찾아 갔다. 그리하여 나는 그와 가만가만 수근거렸다.

이튿날 우리 두 사람은 믿을만한 동무들을 찾아 모아 놓고 내가 들은 소식을 전하였으며 모두가 어서 그날이 닥쳐 오기만 기다렸다. 그들은 나와 나이가 비슷비슷한 청년들이였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일제가 강압 실시한 총칼로 억누르는 무단 정치에 대하여 끝없는 격분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학교 선생들까지도 긴 칼을 차고 거들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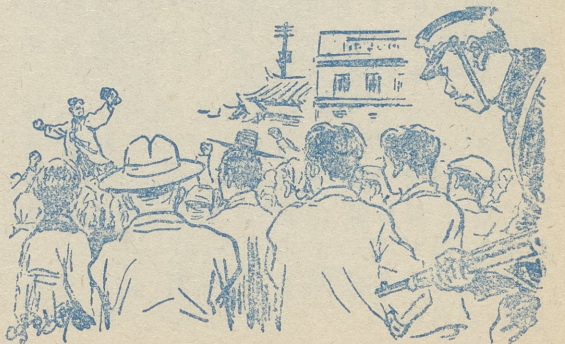
당시 나는 계속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그날에 행동할 것인가를 여러번 궁리하군 하였다. 흥분과 기쁨으로 어서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여 3월 1일은 되였다. 날이 밝아 오기도 전에 우리들은 모여서 성곽으로 둘러 싸인 읍내를 향하여 츤'길을 떠났다. 아직 쌀쌀한 새벽이였지만 몹시 흥분한 우리들이 활기있게 남대천을 건너 십여리'길을 걸어서 성곽 있는 남문 가까이까지 다달았을 적에는 벌써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흰옷으로 갈아 입고 온 농민들, 갓쓴 사람들, 학생들, 부녀자들이 줄을 지어 모여 들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퍽 유감스러웠지만 우리들은 성문 안쪽에 들어 설 수 없었다. 모여 드는 사람들은 날이 밝아 옴에 따라 더욱 더 늘어 갔다.

이곳저곳에서 높이 올라 선 사람이 군중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였다. 군중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로 집중되였다.

그때 우리들이 서 있던 남문 밖에서 연설하던 그 농민 청년의 용감하고 정열적인 모습과 말 소리는 아직도 나의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다.

일제 경찰놈들은 공포를 놓으면서 위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총 칼로써 연설하는 사람을 위협하면서 끌어 내리우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올라서서 연설은 계속되였으며 수만명 군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와 《일본인과 일본 군대는 물러 가라!》고 더욱 힘있게 웨치는 것이였다.

이 얼마나 용감한 투쟁 광경이였겠는가!

녀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 같이 비밀리에 조직되고 준비된 조선 인민의 독립운동의 파도가 이처럼 일제히 전국 각처에서 드세게 일어 설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하였을 것이니 어찌 놈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것인가!

겁을 먹은 일제는 계속 왕성해 가는 인민들의 기세를 진압해 보려고 미친 개 날뛰듯 총 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첫날 시위에서 세사람이 놈들의 총칼에 희생되였다. 더욱 격분한 군중들은 계속하여 2일과 3일에도 굴하지 않고 경찰과 대항하였다. 읍내는 군중들의 힘찬 《조선 독립 만세》 소리로 들끓었던 것이다.

격분한 농민들은 총 대신 식칼, 도끼, 몽둥이, 쇠시랑, 곡괭이 등으로 일제 경찰놈들에게 용감하게 대항하였다.

시위자들은 일제의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계속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때 나는 동무들과 함께 돌맹이와 흙으로 일제 경찰과 대항하였던 일이 기억된다.

청년 학생들은 반일 삐라를 뿌렸고 삐라 뭉치는 군중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였다.

또한 당시 서울과 그 부근 지방에서 일어난 3•1 봉기의 소식은 더욱 군중들을 고무하여 주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일제는 더욱 혹독하게 탄압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대 검거가 시작되였다. 그리하여 많은 애국자들이 체포되여 갔으며 매 맞은 사람, 부상 당한 사람 등 피해 입은 군중들은 무수하였다.

우리들이 그렇게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부른 독립 만세 소리와 시위 운동은 횡포한 일제의 무력적 탄압으로 인하여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3•1 인민 봉기가 있은 이후 조선 인민은 더욱 일제의 흉악 무도한 탄압정책을 증오하게 되였다.

우리 마을에서도 청년들은 일제에 대한 격분을 참지 못하여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복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혁명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였던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혁명 투쟁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3•1 운동 참가자의 수기

◇
작가 송 영
◇

잊지 못할 그날! 3월 초하루'날!

그때 나는 열일곱살 먹은 중학생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씨였습니다. 아지랑이 속에서 우지기는 종달새 소리, 새로 눈 튼 파릇파릇한 새싹들! 새봄! 그러나 해마다 찾아 오는 그때의 새봄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였습니다. 왜놈한테 짓눌린 조선 인민들의 한숨과 눈물로써 꽁꽁 얼어 붙은 겨울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1919년 3월 초하루'날은 이 얼어 붙었던 조선의 얼음'장이 깨여지고 새로운 싹이—자유와 독립을 기어코 이룩하고 말겠다는 조선 민족의 애국의 싹이 터져 올라 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새싹은 로씨야의 위대한 10월 혁명의 종 소리에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새싹은 모진 비'바람을 넉넉히 이겨 내면서 더 씩씩하게 더 굳세고 날카롭게 자라고 자라서 민족 해방 투쟁이란 커다란 꽃으로 활짝 피게 되였던 것입니다.

❀ ❀

그날 오전 열시, 내가 다니던 서울 배재 중학교 넓은 마당에는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목메인 목소리로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높이 불렀습니다.

이 시각, 이 똑 같은 시간에 온 서울장안에서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이같은 눈물 어린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이 만세 소리는 왜놈들의 심장을 찔러 놈들로 하여금 쩔쩔매면서 쥐구멍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시위 군중에 끼여 거리로 나갔을 때에는 사람의 바다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냥 바다가 아니라 태산이라도 무찌를만한 성난 파도였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덕수궁과 탑골 공원과 그리고 원쑤놈들이 둥지 틀고 있던 소위 《조선 총독부》, 왜놈 장사치들만 몰켜 사는 본정통으로 성난 사자들 같이 달려 들었습니다.

황토현 넓은 광장에서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만세를 부르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기절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나 가는 소마차와 인력거 우에서 그리고 전차 지붕 우에서 젊은 애국자들이 《왜놈을 내 쫓자! 조선은 조선 사람의 조선이다. 조선 독립 만세!》하고 피끓는 연설들을 하였습니다.

엄마 등에 업힌 세살 먹은 어린이까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기'발을 휘두르면서 방울 같은 목소리로 만세! 만세! 하고 웨쳤습니다.

처음에는 왜놈 순사들과 헌병들이 너무나 무섭고 당황해서 긴 칼자루를 꽁무니에 감추고 유리창 속에서 벌벌 떨기들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나절이 되자 놈들은 독살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말 탄 순사놈들이 긴 칼을 휘두르고 미쳐 날뛰였으며 헌병과 왜놈 병정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총을 막 쏘았습니다.

어느덧 서울의 거리는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흰옷들을 입었었는데 피에 새빨갛게 물들어 수천 수만의 붉은 기'발 같이 온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그 기'발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의 기'발들이였고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혁명의 기'발들이였습니다.

❀ ❀

그때 나는 나와 동급생이며 문학의 친우이였던 박 세영 (시인 박 세영 선생)과 같이 《자유의 새벽 종 소리》라는 비밀 신문을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비밀히 배포하였습니다.

이 비밀 독립 신문에는 나 같은 열일곱살 짜리들과 많아야 열여덟 살 짜리 소년들이 3,4인 모여서 일곱째 호까지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덟번째에는 왜놈 경찰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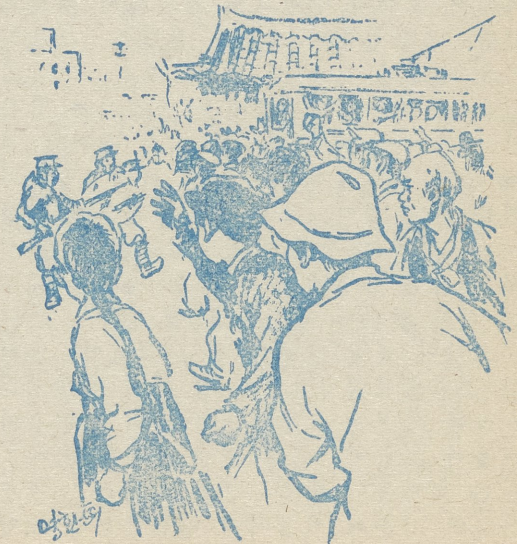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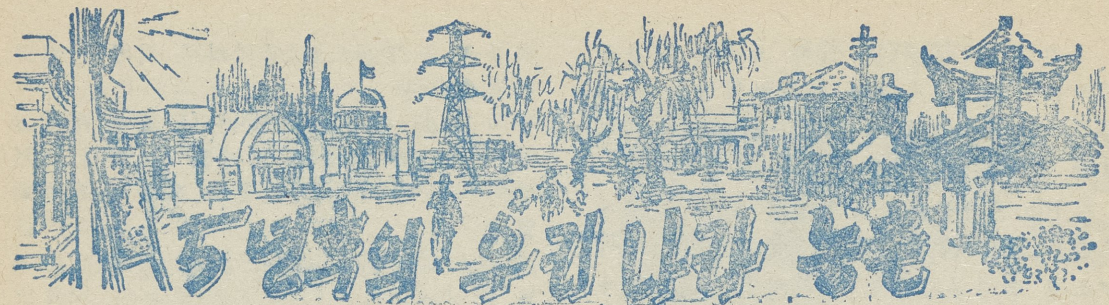
나는 그때부터 학생 모자를 벗어 버리고 납작한 캡 (그때 사포라고 했다)을 쓰고 프로레타리아 문학 운동으로 나서고 말았습니다.

3.1 운동—이것은 조선 사람이란 어느 때 어떤 강도놈에게도 잡혀 죽거나 그냥 못난이 종살이를 지내지 않겠다는 조선 인민의 굳센 애국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애국심 때문에 3.1운동 이후 로동계급을 선두로 한 민족 해방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며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 무장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며 또한 끝까지 싸워 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 삼천리 금수 강산에 자유와 독립의 기'발을 펄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못할 그날! 지금도 그 만세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날이 갈 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 만세 소리가! 승리의 만세 소리가…!

농업 부상 **박 경 수**

우리 나라 농촌은 전쟁이 끝난 후 짧은 동안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정책을 받들고 전체 농민들은 전쟁때 입은 상처를 가시고 농사를 잘 지어서 알곡 생산을 높이였으며 잘 살게 되였고 또한 농업 협동 조합이 많이 조직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는 가는 곳마다 조합 간판이 나 붙지 않은 곳이 거의 없으며 거지반의 농민들이 조합원이라고 불리우면서 조합 살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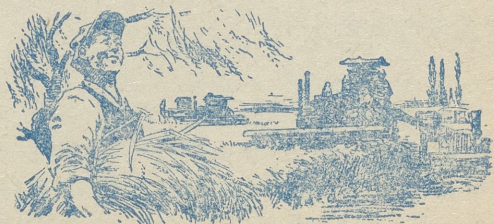
조합원들은 조합 살림에 들어 서면서부터 그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 오던 낡은 생활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살림—사회주의 길인 협동 살림에로 힘 있게 내닫고 있다. 조합원들은 분산된 논 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인 조합의 논 밭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이야 잘 되건 못되건 상관 없이 자기만 잘 되게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이 한결 같이 다 잘 살 것을 바래서 조합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새로운 살림은 그들의 힘을 몇갑절 더 나게 하며 또한 그들의 힘은 한량이 없다. 개인농 시절에는 백사람이 모여서 백의 힘밖에 내지 못하던 것이 조합원이 되면서부터는 이백 삼백의 힘을 내고 있다. 조합들이 조직되자 그전에는 할 념도 두지 못한 엄청나게 큰 관개 공사를 손쉽게 해 치우는 사실만 해도 그 힘이 얼마나 장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조합이 생길 때에는 조합 살림이 약했고 조합원들의 살림도 잘 되지 못했으나 오늘에 와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었으며 그들이 조합에 더욱 굳게 뭉치고 있다. 또한 토지를 늘궜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알뜰히 가꾸어 기름지게 만들었으며 조합 소, 돼지, 닭들이 많아졌다. 조합원들의 가정에도 적지 않은 가축이 우굴거리고 있으며 량곡 분배와 현금 분배가 많아져서 지금에는 조합원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살림이 개선되여 가고 있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은 전후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테 대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은 정책으로 3, 4년 어간에 상당히 발전했으며 로동당 제3차 대회가 내놓은 길을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발전할 것은 훤히 내다 보이는 사실로 되고 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나라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나라 농촌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지난 기간에 조합 발전이 큰 것만치 앞으로 5년 동안에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서 아직 조합에 들지 않은 농민들이 조합을 새로 조직하거나 이미 조직된 조합에 다 들 것은 틀림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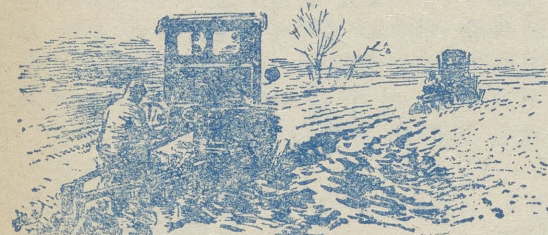
때문에 5년 후의 우리 나라 농촌을 말할 때에는 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무엇을 하며 그 결과 어떠한 성과들이 나타날 것인가.

우선 농사를 더 잘 짓게 될 것이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조합원들은 크나 적으나 관개 공사를 많이 하여 논을 더 늘쿠어 논을 기름지게 하여 논에서 더 많은 벼를 수확할 것이며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을 널리 리용함으로써 알곡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여 전체 농민들이 먹고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은 물론 공장에 더 많은 농산물 원료를 주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조합원들의 수입이 높아지며 또한 농민들은 살림에 필요한 옷감, 고무신, 구두, 내복 기타 많은 공장 생산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

조합 생산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농기계 임경소를 더 많이 만들어 논밭 가는 기계, 파종하는 기계, 김매는 기계, 가을하는 기계들이 들판에서 작업하게 될 것이며, 농민들은 농사 일을 매우 쉽게 하고 수확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5년 후에 놀랄만치 달라질 것은 앞뒤'동산과 마을과 길옆과 집 주위에 여러 가지 실과 나무들이 우거져 봄에는 실과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사과, 배, 밤, 대추, 복숭아, 포도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평안 남도 평원군에 있는 삼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현재 2만 본의 사과 나무를 가지고 있어 해마다 많은 수입을 보면서도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난 해에 수천 본의 사과 나무를 더 심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어느 곳에든지 사과가 잘 되는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으니만치 어느 조합에서나 사과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다.

다음에 말할 것은 매개 조합들에서와 매개 가정에서 가축을 많이 기르게 될 것이다. 5년 후에는 농촌에서 키우는 소, 돼지, 오리, 닭, 양, 벌 등이 지금보다 두배나 더 많아질 것이며 이리하여 고기가 더 많이 생산되는 동시에 가축에서 얻는 수입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농촌에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전체 농민들이 맛 좋은 고기를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들의 수입을 높이며 농사에 리로운 두엄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다.

5년 후에 우리 나라 농촌은 문화적으로 발전될 것인바 우선 조합원들의 집들이 아담하게 꾸려질 것과 마을 한 모퉁이에는 운동장, 목욕탕, 도서실, 커다란 구락부, 상점, 리발소, 양복점, 정미 공장, 기타 문화 후생 시설들이 점차 건설될 것이다. 벌써 일부 조합들에서는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5년 후의 우리 나라 농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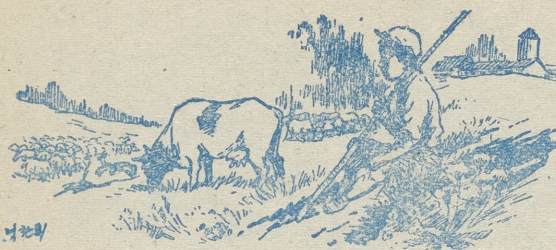
우리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들만치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들이 아무 로력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다. 절대 그렇게는 될 수 없다.

농촌에 보다 큰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지금 조합 사업에 바치고 있는 로력보다 훨씬 많은 로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힘을 들이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장차 조합의 주인이 되여 농촌 건설의 주요한 역군으로 될 어린 동무들이 학교에서 학습도 잘하고 농사 일도 많이 도와야 한다. 벌써 동무들이 시작하고 있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은 참 훌륭한 일이다.

그러면 농촌의 어린 동무들이 농촌 발전을 위해서 5년 동안, 아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첫째로 매개 동무들이 농촌 발전을 위해서 즉 자기들이 자라난 농촌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앞날에 농촌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일부 동무들은 학교를 마치면 도시에 가서 사무원이 되겠다고들 한다. 이런 동무들은 아직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동무들이다.

우리들은 자기가 자라난 농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농촌을 알뜰히 가꾸지 않는다면 누가 농촌을 발전시키겠는가.

농사는 귀중한 식량과 고기와 공업 원료를 생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의 하나이다. 우리 농촌이 발전되여야 전체 인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농사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

농사 기술은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농사는 거저 심으면 곡식이 저절로 무르익는다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다. 농사 기술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여러 동무들이 같이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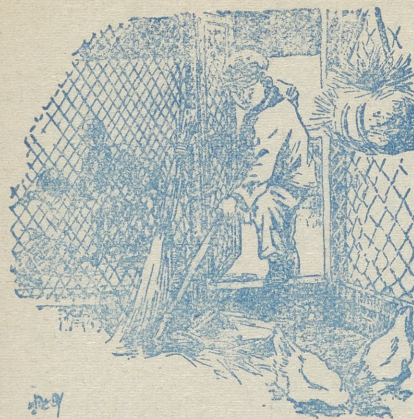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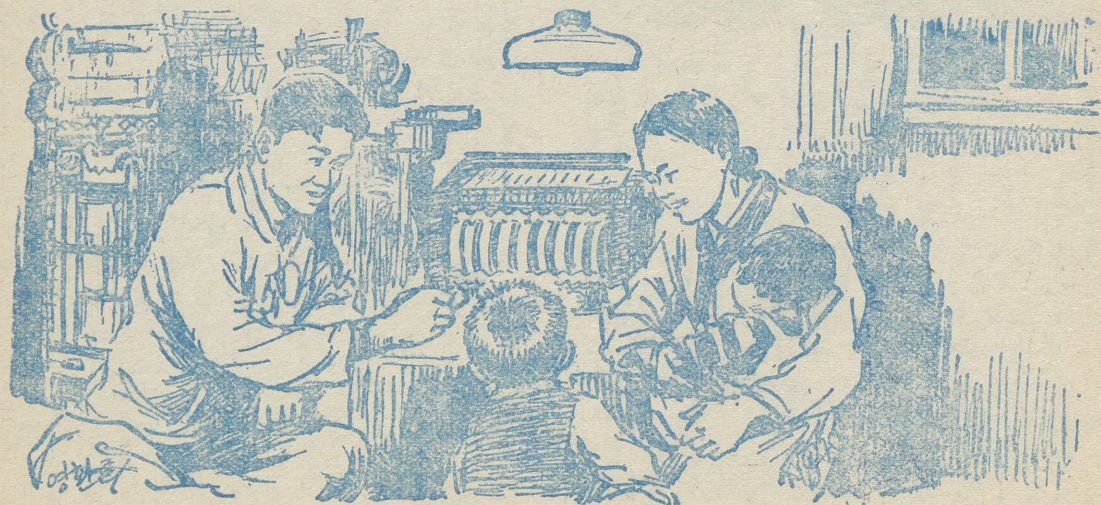
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조건이 풍부하다. 아버지 어머니와 근방 모범 농민들에게 물어서 자꾸 배우며 조합 일을 도우며 학교 실습지에서 실습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해서 농사에 능수가 되도록 배울 수 있다.

세째로 우리들은 조합 사업을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 농촌의 주인이 될 우리들이 조합 일을 모르고서는 주인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조합 살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조합 사업을 연구함에 있어서 조합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즉 학교에서 열리는 모임과 다른 점이 있는가, 조합에서는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량곡과 현금을 분배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로력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로력일 수가 과연 옳게 계산되였는가를 연구하며 기타 조합 일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을 많이 도와야 하겠다. 지금 농촌에는 로력이 바르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 것은 그만큼 조합일이 더 잘되며 수입이 많아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들은 앞으로 농촌의 주인이 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영예를 지니고 과학에 열중하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몸까지 바쳐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하겠다.

그처럼 일을 즐긴다면

◇ 박 정 렬 ◇

엉거주춤해서 분단 동무들 앞에 나선 왕렬 동무의 얼굴은 화끈 달아 올랐다.

(무엇부터 이야기할가?) 말머리를 찾지 못해 머뭇머뭇하던 그는 한참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늘 동무들이 날 충고해 온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보습반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못마땅히 여겨 왔어요, 중학교에서 공부해야만 꼭 훌륭한 일'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는 보습반에서 되는 대로 공부하다가 새해에 꼭 중학교에 가려고만 생각했지요…》.

왕렬 동무가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동무들 앞에서 새 결의를 다지기까지에는 동무들과 분단의 도움이 실로 컸었다.

* *

새 학년도가 시작된지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실습 시간에 이들은 쎌로쓰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였다. 모두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왕렬 동무만은 얼굴을 찡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흥 초중 1학년 과목을 가르친다면서 로어 같은 과목은 안 가르치고 만날 쎌로쓰니 목축업이니 하구만 떠든다니까》. 그는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학습장에 사람 얼굴을 큼직하게 그려 나갔다. 자기가 그린 사람 얼굴을 멀히 바라보다가 태철이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기분을 잃었다.

《그래 너두 여름부터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아이들이 너희반 애들 보구 농사'군이라구 한다》. 이렇게 말하든 태철이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 얄밉게 보였다.

《흥 초급 중학교에 다닌다구 태철이가 다 우쭐해서…》

그러지 않아도 왕렬 동무는 자기가 보습반에 다닌다고 동무들이 수모하는 것만 같아서 풀이 죽어 다녔다.

이렇고 보니 그는 보습반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욱 싫어하게 되였다. 농업이나 실습 시간이면 놀기만 하고 학습장에 필기하는 때보다 안하는 때가 더 많았고 일할 때면 몰래 빠지군 했다. 어떤날 아침에는 책보를 끼고 흔들흔들 학교에 나오다가도 산 속에 들어가 새둥이를 들추기 시작하면 해 지는 줄도 몰랐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왕렬 동무 하나 때문에 분단 동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였다. 의논하던 끝에 분단 위원회에서는 벽 신문을 통해 《그는 왜 결석을 할가요?》 라는 지상 토론을 하게 되였다. 이 지상 토론은 분단 동무들의 주목을 끌었다.

전 봉일 동무는 왕렬 동무를 충고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벽 신문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한해 동안이라도 보습반에서 더 배우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 우리들에게는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농업 일'군이 되기 위하여 실험 실습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겠다》.

많은 동무들이 계속 농사 짓는 일을 천하게 여겨 학습을 게을리하며 결석을 자주 하는 왕렬 동무를 충고하는 글들을 써 붙였다. 그러나 왕렬 동무는 좀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너희들은 날보구 이렇구 저렇구 떠들지만 난 그래도 일을 시작하면 너희들에게 지지 않아, 내 걱정일랑 안해줘두 돼. 실습은 집에서 다해 본거야, 배우지 않아도 전 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는 자기를 충고하는 열성자

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슬슬 피해 다녔다.

그후 분단에서는 실험 실습을 더 잘하기 위하여 가축들을 직접 길러 보기로 했다. 폐품 수집에서 얻은 돈으로 토끼, 닭, 오리들을 마련하고 동물 크루쇼크도 조직했다. 가축을 기르는 일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왕렬 동무는 동물원 만드는 일에는 성수가 났다. 토끼우리도 말아 만들었고 병아리 깨우는 일도 그가 말아 하다싶이 하였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가축들을 사랑하는 왕렬 동무를 동물 크루쇼크 책임자로 뽑았다.

《한때는 충고만 하던 애들이 어떻게 된 셈이야? 날 조롱하는게지》. 그는 이런 생각이 앞서 분단 위원장에게 동물 크루쇼크 책임자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못할게 뭐냐? 뭐든 힘쓰면 되지, 잘 생각해 봐. 특히 넌 가축들을 사랑하지 않니……》 하고 친절히 타이르는 분단 위원장의 말에 그도 분단 동무들의 참뜻을 알고 히죽히 웃어 보였다.

날마다 탐스러운 알을 낳는 닭들을 보살펴 주며 귀여운 병아리를 깨우는 일은 왕렬 동무를 더욱 즐겁게 하였다. 그는 닭 알을 안겨 줄 닭들과 토끼들을 짬짬이 보살피며 울안을 깨끗이 청소해 주군했다. 새 학기에 들어서면서 왕렬 동무네 동물 크루쇼크에서는 매 주일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가축 및 가금들의 생활과 습성들을 실지 관찰하며 연구해 나가게 되였다.

그런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동물 크루쇼크에서는 협동 조합을 견학하게 되였다. 돈사에 이른 크루쇼크원들은 돼지의 생김과 습성을 관찰하고는 저마다 어떤 종류에 속한다고들 떠들어 대였다. 벌써 이들은 목축업에서 돼지의 종류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렬 동무만은 어리벙벙해서 어쩔 줄 모르고 묵묵히 서 있을 뿐이였다. 이날 그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쓸데 없는 장난으로 시간을 보낸 자신을 뉘우치게 되였다.

《괘니 보습반을 업신여겼지, 알구 보니 보습반에서도 배울게 많은 걸 가지구…》.

인민 학교를 졸업한 윤 병선 아저씨는 일하면서 꾸준히 공부해서 농업 기사로 되였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렬 동무는 자기도 협동 조합에서 한번 본때있게 일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느끼였다.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농촌은 자기를 더욱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 줄 학교라는 것을 깨닫고 몹시 기뻐하였다.

* *

봄빛을 받아 얼었던 땅이 차차 녹기 시작했다. 보습반에서는 올해의 실습지 계획에 의하여 200평의 황무지를 신이나서 파 일궜다.

《왕렬이가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야 래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봉연 동무가 이렇게 말해서 모두 한바탕 웃었다.

왕렬 동무도 의미 있게 히죽이 웃으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왕렬인 참 일을 잘했소, 장차 그처럼 일을 즐긴다면 떳떳한 농촌의 주인으로 훌륭히 자랄 것이요》.

오늘 처음으로 일한 보람을 느껴 본 왕렬 동무에게 선생님의 칭찬은 지난 날의 자기를 다시금 뉘우치게 하였다.

함남 인흥군 제 1 중학교 (보습반)대에서

첫째가 학습

평양 사범 전문 학교
교장 **김 칠성**

봄은 제철을 자랑하는 듯 한창 짙어 가고 있습니다.

봄은 학습하기에도 참 좋은 때이지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들에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첫째가 학습이며 둘째 세째도 학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 애국자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학습을 잘했습니다. 학습을 잘해야만 훌륭히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습을 잘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가요? 하루도 결석 지각을 하지 말고 학교에 부지런히 나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꾸준히 복습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과 생활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를 짜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밤에 자는 시간을 똑똑히 정해 놓고 집에서 공부는 어느때 하며 동무들과 유쾌히 노는 시간은 언제인가를 잘 따져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지난 학기에 성적이 좋지 못했던 학과 학습을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그 과목에다 많이 돌리게 하는 동시에 분단에서 맡은 여러가지 사업을 제때에 틀림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히 생각하여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짠 시간표를 곱게 치장한 종이에다 써서 책상 앞에 붙여 놓고 보는 것으로써 만족하면 안됩니다. 실천 없는 시간표는 쓸모 없는 한장의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계획한 그대로 매일 참을성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데서만이 자랑찬 승리자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가지 자장 중요한 문제가 있지요. 시간표대로 꼭꼭 실행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더 빨리 더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옛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였지만 기왕 가는 바에야 구태여 모로 힘들게 오래 동안 걸려서 갈 것이야 있나요.

목표를 정한 다음에야 곧바로 쉽게 그리고 빨리 가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습 시간이 되였다고 해서 책상 머리에 꼭 붙어 앉아서 닥치는 대로

《소년 신문 현상 문예 당선 작품》 동요 2등

빼스 놀이

평양 제18 중학교 제 2학년 김 란영

영식이는 운전수
옥순이는 차장
빵빵 빼스 놀이
참 재미나요.

꼬마 손님 태우고
고동을 울리면서
모택동 광장으로
신이나게 달리죠.

빵빵 달려서
광장까지 다 왔죠.
어서어서 차례로
내려 주시죠.

무질서한 꼬마 동무
한명도 없는
우리우리 빼스 놀이
참 재미나요.

이것 저것 책장을 뒤지며 소리쳐 읽고 쓰기만 해도 안됩니다.

국어 학습에서는 몇번이고 읽고 또 쓰면서 새로 나오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꽁꽁 기억해 두는 동시에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긴 말을 만들어도 보고 글을 지어 써 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혹 뗀 이야기》 라든가 《새로 들어 온 야학생》과 같이 재미있는 것은 동생들이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줄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수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그렇지요.

계산 문제를 되도록 많이 풀어 익숙하게 척척 해내는 동시에 학교에서 내여 준 응용 문제를 꾸준히 자기의 힘으로 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해 가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꾸중을 들을것이 두려워서 되는 대로 남의 것을 쉽게 베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습은 자기의 지식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노력으로써 편안히 지내보자는 좋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으로 풀고 만일 끝내 풀 수 없는 것은 소년단 반 동무들과 함께 푸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산수 학습을 더 많이 더 잘 하자면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례차례 배워 올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도 모르면서 백을 알려고 욕심만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례를 들어 다섯자리' 수의 가감법을 잘 모를때에는 네자리' 수를, 그리고 세자리' 수 승제법을 모르면 두자리' 수로 내려와서 풀어 보고 그것에 자신이 생길 때 비로소 앞으로 차차 전진하는 것이 산수 실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력사를 학습하는데는 국어와 같이 자꾸 읽고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감찬 장군》이나 《리 순신 장군》 같은 애국자들의 용감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기의 말로 분단 모임 등에서 솜씨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리, 자연 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지명과 산, 강들을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기 자신이 우리 나라 지도를 거듭 그려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비록 조그만 물체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또는 길을 걷다가 이름 모를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이라도 그냥 무심히 지내지 말며 꼭 그것을 선생님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창가, 도화, 공작, 체육도 있으나 이는 동무들이 아주 흥미있게 학습하는 과목이니 만큼 더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 다소 소홀히 여겨 왔던 공작 학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공작 시간은 많지 못합니다. 때문에 집에서 선생님이 배워 준 대로 자기 손으로 인형도 만들어 보며 연필 갑도 만들며 다층 집도 지어 보고 간단한 기계 모형도 만들어 보는 습관을 부쳐야만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 일'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무들이 첫째로 할 과업은 바로 학습입니다.

상세한 시간표를 짜서 꼭꼭 참을성 있게 실행하며 새과목에 따라 학습한다면 반드시 동무들은 앞으로 닥쳐 올 국가 졸업 시험과 진급 시험에서도 모두 최우등생과 우등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 —

《소년 신문 현상 문예 당선 작품》 동요 2등

너는 너는 보겠지

평북 룡천 제 4중 학교 최 태 숙

연아연아 올라라
바람 타고 구름 타고
맑고 푸른 하늘에
싱싱 올라라.

가을 바람 훨훨
높이높이 올라서
너는 너는 무엇을
구경하려니.

우뚝우뚝 일어선
공장 굴뚝 새학교
모두모두 한눈에
구경할테지.

우리들도 보고 싶어
애타하는 평양거리
고층 건물 거리들도
너는너는 보겠지.

정 정

2호 기사 《피마주》와 《해바라기》에서 톤을 kg 으로 고칩니다

《영예의 등록》 표창

최 옥 선

이 학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만족한 웃음을 띄우고 《오늘 〈영예의 등록〉 표창의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열성자들과 소년단원들 모두가 한사람처럼 소년단 생활을 잘 해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놈들이 폭격으로 강계시내 학교들을 모두 재'더미로 만들었지만 우리 공화국 정부에서는 보다 아담한 4층 교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중앙 모범 소년단 단체였던 강계 제1 인민 학교와 자강도 모범 소년단 단체였던 강계 2중 학교 동무들은 새 학교에서 한 형제처럼 같이 모여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처음 대와 분단을 조직하고 열성자들을 새로 선거했을 때에는 열성자들 간에도 서로 서먹서먹해서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쳤고 소년단 사업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린 열성자 모임에서는 저마끔 옛 학교들의 전통을 살려 반드시 으뜸가는 학교로 만들자고 결심하는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소년단원들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할가? 하는 것을 의논하기도 하고 인민반 동무들은 초급반 열성자들을 찾아가 의논해서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급반 형님들이 인민반 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도와 주게 되면서 소년단원들은 어떤 의견이든지 대 열성자들에게 제기하게도 되였습니다. 때문에 강계 1 인민 학교가 이름을 날리던 연예 써클도, 강계 2중 학교가 활기를 떠였던 크루쇼크 생활도 더 재미있게 꾸려 갔으며 날이 갈수록 소년단 사업은 빛나 갔습니다.

두 학교 동무들이 모여 같이 생활하기 시작한 3년 동안에 150여매의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의 활동을 넉넉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과 학습 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항상 우수하였거니와 크루쇼크 활동과 연예 써클, 공동 로력 생활들에서 쟁취한 표창이 많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200여점의 실험 기구들이 가득찬 물리 화학 실험실, 80여종의 식물이 자라는 온실과 각종 동물 표본을 만들어 놓은 생물 크루쇼크실, 톱, 마치, 바이스, 뻰치 등 150여점의 기구를 마련한 공작 기술 크루쇼크실 등 각 크루쇼크실을 만들고 실험 실습으로 학과 학습 성적을 높이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만 하여도 초급반 동무들 가운데는 물리 시간에 배운 전기와 자석, 전기 종에 대한 원리를 똑똑히 리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실력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났을 때 성적이 좋지 못한 동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 위원장인 구남이는 대 열성자 모임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전기 종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깨우치자고 했습니다. 전기 종 만드는데는 물론 재료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가? 하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래 우선 구남이가 자기 집에 있던 못쓰게 된 자전거 종을 하나 가져오자 또 다른 대 열성자 동무들도 고이루선 자석 등을 가져왔습니다. 대 열성자들은 매 분단에서 물리 크루쇼크원들을 한명씩 데려다 같이 전기 종을 만들었습니다. 전기 종은 아주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그후 물리 크루쇼크원들은 못쓰게된 종 놋바리 뚜껑 같은 것을 리용해서 분단 동무들과 함께 전기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물리를 배운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전기종에 대한 원리를 잘 알게 되여 자기 집 대문에 만들어 단 동무도 있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선생님의 지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자기들이 주인이 되여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몇번이나 되풀이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히 만들어진 전기 종은 지금 물리 크루쇼크실에는 물론 비치되고 각 크루쇼크실에 하나씩 선사했습니다.

그후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시험관을 꽂는 지치대를 만들어 물리 크루쇼크에 주었고 생물 크루쇼크에서는 화분을 각 크루쇼크에 주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생활들은 이곳 학교《꼬마 방송국》을 통해 온 학교 동무들에게 알려지게 되며 곧 다른 동무들이 그를 본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꼬마 방송국》도 선생님이 참견하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아주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열성자들을 비롯해서 분단 열성자들의 활동으로 연예 프로도 제때에 준비되고 학교 내의 모든 소식들이 빠른 시간에 《방송국》에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학교 대 벽보 주필이면서《꼬마 방송국》책임자인 문 성자 동무는 꼬마 방송원 문철이와 함께 매일 일기 예고, 오늘의 력사, 분단의 소식들을 방송으로 소개하여 주며 《소년단》 잡지, 소년신문 등을 읽어 주면서 특히 학교 문학 크루쇼크원들이 창작한 옛'이야기, 소설, 동요등도 랑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꼬마 방송국》에서는 또한 매 분단에서 준비한 써클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꼬마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참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꼬마 방송에 출현하기 위해 매 분단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극도 꾸며 보고 노래도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 소년단원 동무들은 모두 유쾌한 분단 써클에서 뛰놀게 됩니다.

때문에 대 연예 써클은 도, 시, 군 경연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수많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분단들에서는 서로 어느 분단에 못지 않는 모범 분단을 꾸리여 꼬마 방송에 보도하겠다는 열의로 가득차 있어 날이 갈수록 분단 사업도 잘되여 가며 착한 소년단원들도 늘어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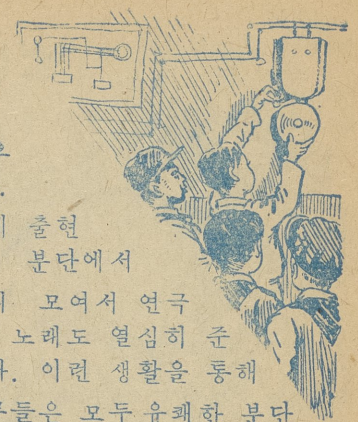
때문에 학교 주의가 더럽거나 운동장에 눈이 내려 쌓여서 오래 있는 때가 없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경쟁하다 싶이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청소하며 정리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으니까요.

내가 이 학교에서 본 아름다운 일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영광스러운 영예의 등록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면서 학과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 활개치고 있다는것입니다.

소년소설

엄 흥섭

남수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 앞 울타리 한편 구통이에 두평 쯤 되게 땅을 잡아 네 모스리에 나무 꼬챙이를 박고 새끼줄을 치기 시작했다.

«얘야! 넌 추운데 마당에서 무얼하니?». 어머니가 물을 이고 들어 오며 말하였다.

«꽃밭 만들어요!».

«뭐? 꽃밭을? 벌써 만들어?».

«미리 해 둬야 해요!».

남수는 손을 훌훌 불며 삽을 둘러메고 흙을 파다가 새끼줄 안으로 퍼 넘겼다.

3월달의 이른 아침 공기는 싸늘하였다. 솟아 오르는 해'별은 남수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치여 주었다.

이른 새벽에 시내로 거름을 실러 달구지를 몰고 나갔던 남수 아버지가 조합에 다녀 돌아 왔을 때는 남수의 꽃밭은 흙이 제법 높직하게 돋구어졌을 때다.

«너 뭐 할려구 그러니?».

아버지가 툭명스럽게 말했을 때 남수는 약간 가슴이 뜨끔하였다.

얼마전 아버지가 조합에서 총회를 하고 밤 늦게 돌아와 하시던 말이 선뜻 생각났기 때문이다.

«금년엔 손'바닥만한 공터라도 놀려서는 안돼! 우리 마당두 바싹 주려서 가장자리로는 옥수수를 더 심어야겠어!».

남수는 아버지의 이 말과 함께 며칠 전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한꺼번에 머리에 떠 올랐다.

«학생들! 금년부터는 한평 가량씩 마당에다 반드시 꽃밭을 만들어서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야겠소. 학생들의 집마다 꽃밭이 꾸며지면 우리 마을은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될 것이요.

학생들! 이제는 얼음도 녹고 날도 풀렸으니 제각기 틈나는 대로 꽃밭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남수의 귀'전에는 선생님의 이 말이 더 또렷하게 울려 나왔으나 마당'가에 옥수수를 심어야겠다는 아버지의 승낙도 없이 마당 구통이에 자기 마음대로 꽃밭을 만든 것이 께끄름했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다 꽃밭을 만들면 안돼요?» 하고 아버지의 눈치를 쳐다 보았다.

«이녀석아! 옥수수 한 포기라도 더 심어야 해! 금년엔 터 밭에서도 120%의 증산을 해야겠다. 금년이 무슨 핸지 아니? 5개년 계획의 첫해야…».

아버지는 남수를 가볍게 꾸짖었다.

«옥수수는 뒤울안에다 더 심으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마당'가에다가 반드시 꽃밭을 만들랬어요».

남수는 어느덧 뽀루퉁해졌다.

«잔말 말고 집어 치워! 꽃밭은 무슨 어느새 꽃밭이냐!».

남수는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꽃밭을 다 만들지 못하고 중단해 버렸다.

아버지가 마당을 주려서라도 옥수수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라고 느껴졌으나 너무도 자기의 하는 일에 무뚝뚝하게 반대해 나서는 것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다.

«남수야! 오늘이 참 일요일이지?

너 오늘은 가마니 좀 짜야겠다. 래일까지는 조합에 다 바쳐야 할테니까…».

아버지는 짚단을 묶어 가지고 우칸으로 들어 온다.

남수는 뽀루퉁한 얼굴로 말 없이 앉아서 가마니 날을 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은 딴데로만 쏠리였다.

사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꽃밭을 만들어 놓고 오전 중으로 이웃집 영식이와 함께 기동이네 집으로 꽃 나무를 얻으려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어제 남수와 영식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동이로부터 꽃 나무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던 것이다.

기동이네 집은 남수네 마을에서 거의 십리 가량이나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있었다.

기동이네 집에는 복숭아 나무, 사과 나무, 배 나무 같은 과실 나무도 많이 있고 또 장미꽃, 찔레꽃, 목단꽃 같은 아름다운 꽃 나무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 집마다 꽃밭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학생들은 기동이에게 꽃 나무를 나누어 달라고 너도 나도 간청하여 나섰던 것이다.

«그래! 주마, 누구든지 먼저 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가져 갈려면 일요일 날들 오려마!».

기동이는 이렇게 선선히 말하였다.

때문에 어제 다시 약속을 다지고 오늘 오전 중으로 남수와 영식이가 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마니를 짜자고 하는 바람에 남수는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거의 한잎 가량 다 짰을 무렵 영식이가 들어 닥치였다.

«남수야! 가자!».

가마니를 짜던 남수는 영식이를 말없이 힐끔 바라 보기만 했다.

«가자니? 어디를 가?».

남수 아버지가 고함을 팩 질렀다.

«동무네 집에 꽃 나무 얻으려 가기로 했어요».

영식이가 말했다.

«이녀석들아! 꽃 나무 심을 데다 난알 하나라도 더 심어야지! 꽃 나무가 뭐야 다».

남수 아버지는 영식이까지 은근히 꾸중하였다.

«아니예요. 꽃 나무 심는다고 낟알 못 심나요! 꽃밭을 만들어 꽃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면 좋잖아요?».

영식이가 남수 아버지에게 다가 앉으며 말했다.

«아니다! 꽃밭 만들 땅에다두 낟알을 심어야 한다».

남수 아버지는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가 그러는데 조합원들 집에 모두다 한평씩 꽃밭을 만들랬다는데요!».

영식이가 또 말했다.

«누가 그러던?».

남수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영식이를 흘겨 보며 말했다.

남수 어머니가 밖에서 들어 오며 영식이 편을 들었다.

«영식이 말이 옳다우! 금년에는 조합원이거나 개인농이거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꽃밭을 만들자구 의논이 되였다나 봅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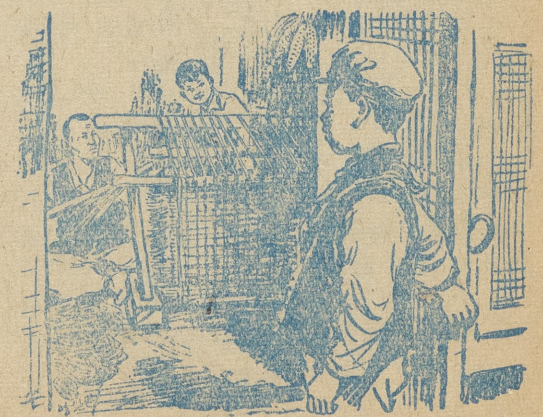
남수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으며

«아, 꽃밭을 만들어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면 좋지 않소. 우리 농민들도 이제부터는 꽃을 가꾸어 가며 아름답게 살아야 될게 아니요. 어서 꽃 나무 얻어 오려므나, 동무끼리 약속하구 약속을 어겨 쓰겠니?».

하고 남수의 손에 쥐였던 가마니 바디를 가로 잡아 채였다.

남수는 어머니가 승낙은 하였으나 정작 아버지의 승낙이 없어서 불안스러웠으므로

«아버지! 갔다 와요?» 하고 물었다.

무슨 일에든지 어머니의 의견에 별로 반대하지 않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

는 잠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늘에 짚을 물려 가마니만 짜더니

《이 녀석아 글쎄 꽃 나무가 급해?

오늘 가마니를 다 끝내야 할텐데》.

하고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

《얼른 갔다 올게요》.

《그럼 얼른 갔다 와! 노다거리지 말구》.

아버지 승낙이 떨어지자 남수의 흐렸던 마음은 활짝 개이기 시작했다.

꽃밭을 만들어 꽃 나무를 심고 꽃씨를 뿌려 가꾸어 가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울긋불긋 만발하게 되면 향기롭고 고운 꽃들을 따서 꽃다발을 만들어 들고 8•15 해방 기념일에 인민 군대 영웅 아저씨와 로력 영웅 아저씨들을 찾아가 한 아름씩 안겨 줄 수 있다고 생각되였을 때 남수는 어느덧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이였다.

남수는 영식이와 함께 쏜살 같이 기동이네 집으로 꽃 나무를 얻으려 갔다.

그러나 벌써 꽃 나무는 다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얻어 가고 남수와 영식의 차례는 없었다.

남수는 락심이 되였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승낙만 했어도 꽃 나무는 틀림 없이 얻어 갈 수 있었을 것을 생각했을 때 새삼스럽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남수와 영식이는 어쩔 수 없이 빈 손으로 돌아 섰다.

《우리 산에서 진달래 나무라도 몇 포기씩 뽑아 가자꾸나》.

영식이가 말했을 때 남수도 찬성을 하고 기동이네 집 뒤'산으로 올라 갔다.

양지 바지 산 비탈에는 여기저기 멋들어지게 가지가 뻗은 진달래 나무들이 눈에 띄였다. 벌써 가지마다 물이 올라 기름져 보이고 록두 알 만큼씩한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야! 우리 키 큰 놈으로 뽑아 가자꾸나!》.

《그래 뽑아다 심어 놓으면 얼마 안가 꽃이 필거야》.

남수와 영식이는 서로 의논하면서 키크고 보기 좋은 진달래 나무를 골라서 뽑기 시작했다.

《얘들아! 너희들 뭘 그리 뽑느냐?》.

누구인지 고함을 팩 지르는 소리가 들리였다.

남수는 깜짝 놀라며 소리 나는 쪽을 살피였다. 공교롭게 산 모퉁이 길로 지나가던 지도원 선생님에게 들킨 것이다.

남수는 가슴이 뜨금하였다.

《너희들 산에 있는 나무를 뽑으면 안된다. 어서 내려 와!》.

남수와 영식이는 무우 뽑아 먹다가 주인에게 들킨 것처럼 어색하였다.

《너희들 꽃 밭 만들려구 그러지?》.

《네》.

《진달래는 산에 두고 제절로 피여나는 것을 보는게 더 아름다운거야. 이리들 내려와. 내 우리 집에 가서 좋은 꽃 나무 주마!》.

지도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남수와 영식이를 바라 보았다.

남수와 영식이는 선생님 말씀대로 더 뽑지 못하고 이미 뽑아 놓은 나무는 다시 제자리에 심기 시작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건데 이렇게 뽑았으니…》.

《그렇지만 누가 땔 나무를 하려고 뽑진 않았으니깐…》.

남수와 영식이는 소군거리며 선생님 앞에 가까이 걸어 내려 왔다.

《남수는 오늘 아침 꽃밭 때문에 아버지한테 꾸지람 들었다지?》.

선생님은 다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 내가 오다가 남수네 집엘 다녀 오는 길이야! 남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야! 다수확을 내기 위해서 그러신거니깐 꽃밭은 조그맣게 만들면 돼!》.

남수는 마음이 갑자기 흐뭇해졌다.

남수와 영식이는 선생님을 따라 선생님댁으로 갔다. 선생님댁 앞 마당에는 여러가지 꽃 나무 뿌리들이 뾰족뾰족 새싹이 돋아 나오고 있었다.

《날이 좀 더 풀려 땅이 활짝 녹으면 우리 학교 정원에도 작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자꾸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꽃 나무 뿌리 몇개씩을 남수와 영식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남수가 집에 돌아 왔을 때는 어머니 혼자서 가마니 날을 꼬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조합에 가셨다. 그런데 겨우 그거냐? 꽃나무가……》.

《인제 두고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핀대요》.

남수는 대뜸 대들어 마당에 만들어 놓은 꽃밭 한쪽 가장 자리에다 꽃 나무 뿌리를 심기 시작했다.

《얘 꽃밭은 앞으로 조그맣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크기만 하면 수냐, 그리구 뒤에는 남겨라, 아버지 말씀대로 낟알을 한 포기라도 더 심자꾸나! 선생님이 오셔서 보시고 갔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 놓고 남수에게 말했다.

《그렇잖아두 그럴라구 그래요! 뒤에다는 아버지 말씀대로 옥수수를 심어요! 네》.

거의 저녁 때가 되였다.

남수 아버지가 돌아 왔다. 남수 아버지는 아침에 남수를 대할 때와는 딴판으로 퍽 부드러운 태도에 빙글빙글 웃음을 띄우며 무엇인가 신문지 뭉텅이에 길쭉하게 사가지고 들어 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엇이예요?》.

《이건 복숭아 나무 하구 사과 나무다. 기왕 꽃밭을 만들 바엔 꽃도 보고 열매도 따 먹는 나무를 심어야 돼!》.

아버지는 신문지로 싸온 어린 나무들을 남수에게 내주었다.

《이거 어디서 얻으셨어요?》.

《조합에서 미리 나누어 왔다》.

《언제나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담!》

남수는 어린 나무를 하나 하나 만져 보며 말했다.

《5년안에 꽃도 피고 열매도 연단다. 심어 놓고 잘 키워라!》.

《그럼 5개년 계획이 완수될 때엔 열매가 주렁 주렁 매달리게 되겠지요?》.

남수는 무심코 말하며 빙긋이 웃었다.

《이녀석아! 5년 이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도록 잘 키워야지, 어느 세월에 5개년 계획이 끝날 때를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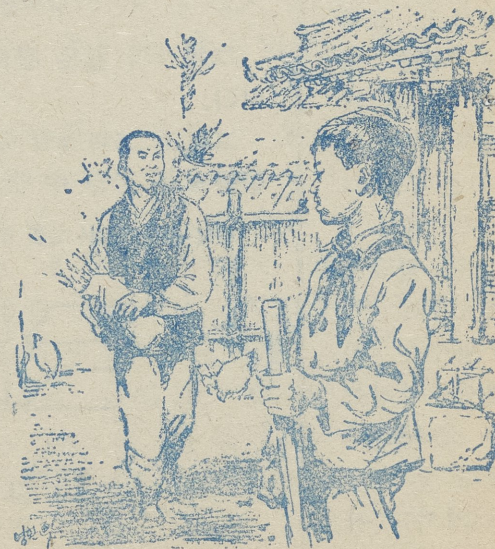
남수는 아버지가 준 복숭아 나무와 사과 나무를 울타리 좌우편과 마당 앞에 듬성듬성 심기 시작했다.

《인제 우리 집은 5년 이내에 제물로 꽃밭 속에 파묻히게 되겠지요.

여름에는 푸른 그늘이 우거지고 가을철에는 주먹 같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남수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 집이 아름다운 꽃밭 속에 파묻힐 몇해 후를 눈 앞에 그려 보았다.

《우리 집만 그렇게 되겠니? 온 마을이 다 아름다와질게다》.

《정말 5개년 계획이 얼른 지나 갔으면 좋겠어요! 그땐 나두 고중에 다닐 수 있죠》.

《이녀석아, 부지런히 공부해서 최우등을 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4점 3점 받아 가지구 무슨 고중엘 가!》.

《념려 마세요! 나두 5개년 계획 세웠어요. 금년엔 3점은 전부 없애고 래년에 4점을 전부 없애고 그 다음 해엔 5점을 받을테예요!》.

남수는 자신이 넘치는 목 소리로 말했다.

《어디 보자 녀 계획 대로 안하면 안돼》.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다시 짚단을 한다발 추겨 가지고 방으로 들어 갔다.

남수는 나무를 다 심고 흙 묻은 손을 씻은 다음 얼른 방으로 들어 갔다.

《어머니는 인제 그만 저녁 지으세요. 가마니는 아버지하구 나하구 짤게요!》.

남수는 아버지와 함께 짜다 남은 가마니 틀 앞에 앉아서 바디를 틀어 쥐였다.

얼마 후 부엌에서 밥을 짓던 어머니가 녹쓴 깡통 한개를 들고 나오며

《얘, 이 속에 꽃씨가 들었나부다, 잘 가려서 래일 아침에 심어라》 하고 남수에게 주었다.

《네, 네, 키 적은 꽃씨는 앞에 심고요, 키 큰 꽃씨는 뒤에 심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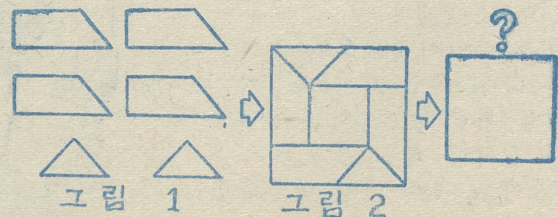
남수는 꽃씨 담긴 깡통을 받아 선반 우에 올려 놓고 다시 가마니 바디를 힘차게 틀어 잡고 기운껏 내리 눌렀다.

그림 림영환

문제 풀이

그림 1과 같은 제형 4개와 삼각형 2개로 정방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2와 같이 정방형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 없이 정방형을 만들 수 있을가요?

(평북 신의주 제4 인민 학교 5의 2 배 광원 동무가 보낸 문제를 좀 고친 것이다).

독서는 학습을 돕는다

▲최 화 규▲

언 땅이 녹아 내리는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하루의 공부를 끝마친 아이들이 급히 학교 도서실로 달려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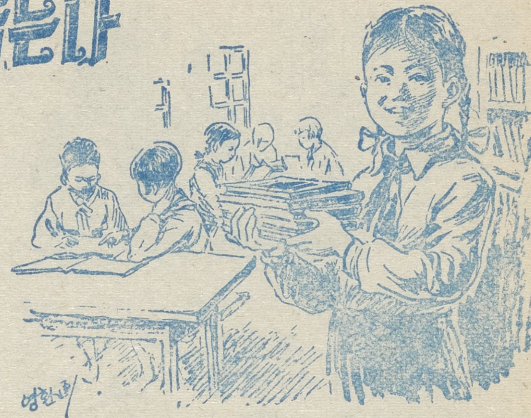
도서실은 잠간 사이에 책 빌리러 온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어떤 아이는 알룩달룩한 뚜껑이의 책을 펼쳐 보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책장에서 이것저것 고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기에 분주합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머리에 고운 리봉을 단 애가 여러 권의 책을 빌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남달리 책을 여러 권 빌려 가는 것은 웬 일일가? 바로 그가 책을 많이 읽는 애가 아닐가?)

이런 생각은 그와 이야기해 보고 싶은 마음을 부쩍 솟게 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교실에 들어서니 여러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꽃봉오리》라고 제목을 붙인 벽신문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가 6분단 5반 반장인 최 정애 동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애로부터 5반 동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자랑과 홍심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홍심이는 읽는 것이 몹시 서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무엇이나 읽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읽게 되는 국어 시간이 오면 《선생님으로부터 지명 받으면 어쩌나, 차라리 배 아프다고 말하고 집에나 갈걸》. 그는 이러한 딴 궁리에 골몰하군 하였습니다.

이따금 공부 시간에 앞 줄에서부터 차례로 글을 읽어 오면 뒷줄에 앉은 홍심이는 자기 차례로 오기 전에 빨리 종이 나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버들 가지 드리우고》를 《버들 가지 들리우고》로 읽었고, 또 잘 읽지 못하는 탓으로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하다가는 말의 갈피를 못잡고 《거… 거…》하고 대답하군 하여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마

다. 선생님은 그에게 《홍심이는 더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말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오빠의 책장에서 《참된 사람의 이야기》를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 페지를 읽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홍심이는 정애에게 어떤 책들을 읽는가고 물으면서 자기가 책 읽던 사정을 말했습니다. 정애는 그에게 《그 책은 형님들이나 읽을 책이야,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그림과 시로 된 《백두산》을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처음 몇 페지를 읽을 때까지는 재미 없었으나 그림을 보면서 한 반쯤 읽어 보니까 마지막까지 빨리 다 읽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많고 짧은 글이 씌여진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차차 책에 취미를 부치게 되였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부터 두터운 책도 읽게 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책을 많이 읽으며 점점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을 보시고 읽은 책의 내용을 동무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동무들 앞에서 책 내용을 말하려면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읽은 《축구화》에 대하여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반장인 정애 동무는 다음 읽은 책 이야기 모임 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서 《축구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에 대하여 홍심이가 모르는 것을 더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야기 모임 때에 홍심이는 《축구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동무들이 놀랄만큼 훌륭히 했습니다.

* *

《홍심이는 책을 읽고는 꼭꼭 일기장에 느낀 것을 쓴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끝내면서 정애 동무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동무를 바라 보며 웃음 짓는 것이였습니다.

그 동무는 수집어하면서 잠자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홍심 동무였습니다.

정애 동무는 홍심 동무에게 가서 그 무엇인가 속삭이자 일기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박또박 박아 쓴 일기장 첫페지에는 《잊을 수 없다》를 《잊을 수 업다》 라고 쓰고 《찾아 갔다》를 《차자 갔다》라고 쓴 틀린 글'자들이 많았으나 요즈음에 쓴 글에서는 틀린 글'자들이 적었습니다.

정애는 여러 권의 책을 나에게 보여 주면서 반동무들에게 돌려 줄 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야 도서실에서 생겼던 의문을 풀었습니다.

책을 적게 읽는 아이들은 책을 빌려 읽은 다음에 감상을 꼭 쓰라는 것이 싫어서 도서실에서 책 빌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감상을 적고 싶은 아이들만 적으라고 했으나 아직도 남들이 다 감상을 쓰는데 혼자 안 써서 되겠는가고 생각하는 동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이야기를 끝맺고 일어 섰을 때 그 동안에 만들어진 벽신문을 보았습니다.

벽신문에는 군임질하려던 돈을 모아 여섯 권이나 책을 사서 읽었고 그 책들을 동무들이 읽도록 분단에 가져 왔다는 홍심이의 이야기도 씌여져 있었습니다.

말 없이 앉아 있던 홍심이는 나에게 《독서는 학습을 도울 뿐만 아니라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에게서 수집은 기색은 사라져서 볼 수 없었습니다.

황북 사리원 제 1 중학교(인민반) 대에서

《희원이 같은 애를 꼭 신문이나 잡지에 내 줘야 하네, 그 앤 우리 마을의 자랑일세》.

마을 할아버지들도 희원이를 칭찬하다가는 의례 이런 말을 하군 했다.

문 희원 동무는 함남 영흥군 제 4 중학교 대 위원장이다.

그는 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학습의 여가를 타서 부지런히 일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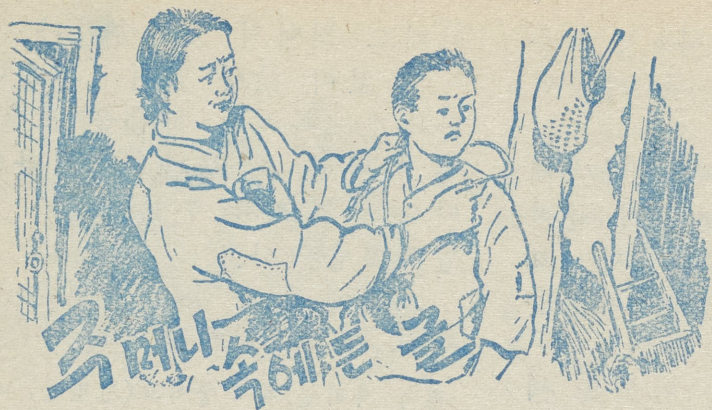
아침마다. 희원 동무는 일과표에 의하여 집 주위를 깨끗이 쓸어 놓으며 집안을 정돈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농사철이면 해마다 터밭을 가꾸며 가축들을 잘 돌봐 줄뿐 아니라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나무 걱정이 없도록 항상 마련하기에 힘쓴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도 동생과 함께 가마니 180장을 짜서 집'일을 도왔고, 자기의 학용품도 갖추었다.

《넌 집'일을 그렇게 도우면서도 어떻거면 늘 최우등을 하니!》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칭찬하면 희원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마음의 준비만 단단히 하면 못해낼께 뭐 있겠어요. 꼭꼭 공부를 한 뒤에 짬짬이 집'일을 도울 따름이지요》 라고 대답하군 한다.

학습에서나 소년단 사업에서도 항상 모범이 되여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의 등록》 표창을 받은 그는 지금 학교와 마을에서 동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글, 윤 상 섭
그림, 현 재 덕

계룡산은 남조선에서도 이름있는 높은 산입니다. 춘식이는 오늘도 땔 나무를 하려고 지게를 지고 이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아침에 춘식이는 웬 일인지 가슴이 때근하고 속이 메식메식한 것을 억지로 참고 나무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춘식이는 얼른 나무 한짐을 해다가 놓고 발에 나갈 욕심으로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요놈의 자식!》하고 산림지기가 달려 올라 왔습니다. 춘식이는 깜짝 놀라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머리칼이 쭈뼛했습니다.

산림지기는 갈퀴를 빼앗으려고 덤벼 듭니다. 할 수 없이 춘식이는 산림지기를 산 밑으로 내려 굴릴 셈 치고 나무 묶음을 넝큼 들어 그한테 콱 던져 주면서 지게와 갈퀴만을 가지고 날쌔게 뺑소니 쳐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저녁녘에 춘식이는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데 웬 일인지 아찔하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 메시껍고 가슴이 때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은 것이 체한 줄 알았지만 체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춘식이는 일찌감치 자리에 누워 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밤 열한시쯤 되여서입니다. 혼곤히 자던 춘식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미국놈이 덤벼 들어요》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래서

《꿈을 꾸었니? 왜 그러니!》하고 물었지만 춘식이는《왜 날보고 가재요. 난 안 가요. 안 가요》하고 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골치가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똑똑하던 춘식이는 그날부터 정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할 엄두도 안냈고 식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노상 눈을 똑 바로 뜨고 있지만 눈알은 언제나 한군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공연히 울었고 또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아들의 꼴을 보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가난한 춘식이와 춘식이 어머니는 남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가난하기만 합니다. 엎친데 덮치기로 춘식이까지 제 정신을 잃은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아무래도 못된 귀신이 우리를 못살게 하려는게다》.

아무도 따라 오는 사람이 없는데 춘식이 눈에만 보인다는 것은 귀신이 분명하다고 그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무당에게라도 찾아가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무당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못된 사귀가 들려서 춘식이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들은 모두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굿을 하지 않으면 춘식이는 내내 미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춘식이네가 가난한 것을 눈치 챈 한 늙은 무당이 선심이나 쓰는듯이 싼값으로《부적》을 몇장 주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빨간 물'감으로 글도 아닌 귀발 개발 같은 것을 그려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못된 귀신을 몰아 낸다는 것입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이《부적》을 사다가 온통 집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큰《부적》을 작은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목에 걸듯이 춘식이의 목에다가 걸어 주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춘식이는《그따위 짓은 허무맹랑한 미신》이라고 하면서 찢어 버렸을 것인데 어머니가 그것을 목에다가 걸어 주어도 가만이 있었습니다.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산신령》이 노해서 춘식이에게 벌을 주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정한 물을 떠다 놓고《하나님, 산신령님》하고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식이는 점점 더 이상해 가기만 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혹시 병원에라도 가 보라고 권고를 했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춘식이 어머니는 병원에서 미친 아이를 고쳤다는 말을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귀신의 장난이 틀림 없을 것이라고 춘식이 어머니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춘식이가 하던 땔 나무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어느날 춘식이 어머니는 지게를 지고 계룡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 갔지요. 거기서 춘식이 어머니는 또 아들 생각을 하고 조용히 꿇어앉아서《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무엇을 하십니까?》하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산림지긴가보다》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젊은 청년이 춘식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더부룩하고 얼굴이 파리하게 마른 것으로 보아 오래 동안 산 속에서 지내는 청년이 분명했습니다.

리 승만의 고약한《징병》을 반대해서 이렇게 산 속에 숨어 있는 젊은이를 춘식이 어머니는 가끔 보았습니다.

그래서 춘식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춘식이의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저는 의학 공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댁이 어디신지 밤중에 몰래 내려 가서 보아 드리지요》하고 젊은 청년은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무도 같이 해 주었습니다.

밤 중에 그 젊은이는 춘식이의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춘식이는 모르는 사람이 와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은 춘식이의 목에 걸린《부적》주머니를 풀어 보려고 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말렸습니다. 청년은 웃기만하고 춘식이의 병세를 다시 차근히 물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춘식이가 산에서 놀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저께는 목에서 커다란 거위(회충)가 한마리 다 나왔다우. 정신 잃은 사람의 몸에는 거위도 있기 싫은가봐유》하고 슬픈 한숨을 지웁니다. 그 말에 청년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래일 일찍 읍에 가서 싼또닝을 사다가 먹여 봅시다》.

《싼또닝이라니요?》.

《회충산입니다. 거위를 죽이는 약입니다》.

《거위를 죽이는 약이 미친 사람한테 무슨 약이라우》.

청년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춘식이 어머니는 또 실망했지요. 이 눈치를 챈 청년은 한참 생각한 끝에 또 말했습니다.

《제가 산 속으로 돌아 다니는 사이에 꿈에 산신령을 자주 만납니다》. 이 말에 춘식이 어머니는 눈이 번쩍 띄였지요.

《어제'밤 꿈에 산신령이 또 나타나더니 목에서 거위가 나온 아이에게〈부적〉을 다시 써서 지녀 주고 회충약을 써서 고쳐 주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그 말에《정말이우?》하고 반가와 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밤중에 산에서 자면《산신령》이 나타날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춘식이 어머니는 두말

않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년은 다짐을 한 뒤에 약쓰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식이 목에 걸린 부적 주머니에서 무당이 준 부적을 꺼내 버리고 청년은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더니 다시 무엇인가 써서 그 주머니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가만이 천정만 바라보고 앉았던 춘식이는 별안간《하하하》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골치가 아프다고 웁니다.

그 이틀날 춘식이 어머는는 가까스로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읍에 가서 산토닝을 사다가 춘식이에게 먹였지요. 그랬더니 춘식이는 거위를 20여마리나 누었습니다. 그런 뒤에 춘식이는 골치 아프다는 말도 없고 웃다가 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춘식이는 새약을 먹고 회충을 또 20마리나 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정신이 돌아 섰습니다. 눈자위도 제대로 들어 섰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도 잘 했습니다. 춘식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춘식이 어머니는 며칠후 밤중에 또 찾아온 청년을 붙들고 치하를 짝듯이 했습니다.

《산 신령님이 참 용하시우 당신은 참 훌륭한 산 신령님의 제자우다》.

《의학상으로 보아 사람의 배속에 회충(거위)이 많으면 미친 사람 같은 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모다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에서 회충을 없애야만 합니다. 산 신령이고 귀신이고 그 따위는 없는겝니다.

리 승만이는 인민들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아직도 그 몹쓸 미신을 퍼트리지요 보십시요》

하고 청년은 춘식이의 목에 걸었던 부적을 꺼내 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목에 걸은 아이는 더욱 더 미쳐서 죽을게라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춘식이 병은 나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춘식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미신도 없애고 리 승만이도 타도해야해요》.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랬구나 네말이 맞다》.

◇비사'돌을 호철에게◇

◇호철네 집도 헐리게 되였다◇

△ 고개'길

호철네가 여러 대를 두고 살아 내려 오던 고요하고 평화스럽던 마을에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일본놈들이 마을 한판으로 철도를 놓게 된 것이다.

호철네 집도 이통에 헐리게 되였다.

호철네 네 식구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밤새 걱정도 하고 의논도 한 끝에 호철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묵는 땅이 많다는 만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호철의 누나인 꽃단이는 이모의 집에 맡겨 두고 가기로 하였다. 그것은 만주에 가서 몇해 살다가 다시 돌아 올터인데 그곳에 가서 나이가 차서 시집 가게 되면 다시 조국에 돌아 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그들은 동리 뒤'고개 마루에서 친척들과 리별하였다.

네 식구 가운데서 혼자 떨어지게 된 꽃단이와 그를 떨궈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 질듯이 아팠다.

호철의 친구인 길남은 가는 호철을 불러 세우고 자기가 제일 귀중히 여기던 비사'돌을 호철에게 내 주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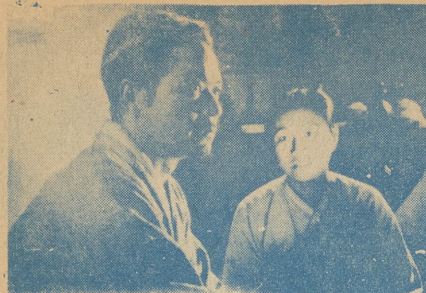
△ 두만강 반

호철네 세 식구는 이사'짐을 지고 이고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 며칠을 걸어 두만강'가에 이르렀다. 여기선 그들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낯서른 만주 땅으로 건너 가는 사람이 자기들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만강 배 나들이에는 가족을 데리고 수심 어린 얼굴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만강은 하루에도 몇백명씩 고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건너 놓았는가? 두만강은 이 사람들이 흘린 눈물로 하여 물이 불은 것은 아닌가? 늙은 사공은 그런 일은 너무 보아서 심상한듯 묵묵히 호철이가 탄 배를 젔고 있다

◇ 두만강변에 이르러 ◇

◇고향 생각에 싸인 호철◇

◇ 《아이구 다리야》 ◇

◇왕 영철의 땅을 빌러 간 아버지◇

◇《우리는 싸워야 겠소》◇

◇후방 활동을 하시던 아버지는 그만…◇

◇련락가던 어머니는 강 태식을 만

◇그리운 어머니를 찾아◇

◇그는 정찰나온 빨찌산 대원이였다◇ ◇아동 혁명단에 빨찌산 대장이 찾아왔다◇

△ 보'짐을 푼 첫날

호철네는 오래전에 만주에 들어 와 살고 있는 친척 집을 찾아 가서 짐을 풀었다.

그곳 농민들은 이 새로 온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 주었다.

저녁을 먹고 난 호철은 혼자 마당'가에서 대륙의 저녁 노을을 바라 보고 서 있다.

조선에도 저녁 노을이 있다. 그것은 이다지 꽃처럼 붉었다가도 누렇게 변하고 누렇다가도 갑자기 회색으로도 변한다.

《저녁 노을은 아침 비》 라 하여 농민들은 노을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속에서 자라난 호철이도 길남이와 같이 저녁 노을을 바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였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 이국 땅에서 보는 저녁 노을은 그 빛이 달라서가 아니라 보는 이의 서글픈 마음 때문에 더욱 서글퍼 보였다.

이제부터 그의 이웃이 된 친척집 처녀 보배는 호철이가 노을을 바라 보고 서 있는 마음을 알고서인지 말로만 들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호철의 표정에 맞춰 긴 한숨을 쉰다.

△ 아버지는 왜 죽었나?

호철의 아버지 동환이는 중국 지주 왕 영청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었다.

왕 영청은 왜놈의 앞잡이로 위만 정부의 경찰 서장이면서 지주였다. 그놈은 인민에게서 굴뚝세까지 받아 처 먹는 놈이였다. 그놈의 땅을 부치는 데는 여러가지 가혹한 착취 조건이 붙었다.

동환이는 소작살이를 하면서 당시 동만 지방에서 조선 해방 투쟁을 위하여 활동하던 김 일성 항일 유격대의 한 지대의 지도 밑에 조국 광복회원이 되여 후방 활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잡혀 무참히 학살되였다.

조국에 다시 돌아 갈 것을 결심하고 딸 꽃단이까지 고향에 두고 온 동환이는 조국에 돌아 갈 날이 속히 오게 하기 위하여 활약하다가 애석하게 만주 땅에 뼈를 묻었다.

호철은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를 묻고 나서 그 앞에서 울음으로 결심하였다.《아버지를 죽인 놈을 내 손으로 죽이리라》.

△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뒤 호철은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부녀 회원이 되여 유격대에 련락을 하였다. 어머니는 어떤 날 유격대에 량식 둔 곳을 알려 주려 가다가 왜놈의 끄나풀인 강 태식을 만났다.

놈은 호철 어머니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의 뒤를 따랐다.

이것을 감촉한 호철 어머니는 깊은 산속에 들어 갔을때 숲속에 숨어 남편에게서 물려 받은 권총을 재여 들고 뒤따르려는 강 태식을 쏘아 넘겼다. 그러나 빗맞은 강 태식은 죽은 체 하고 자빠져 있다가 죽은 줄만 알고 가까이 오는 호철 어머니를 자기 총으로 쏘았다. 이 총소리를 들은 빨찌산들이 달려 와서 강 태식을 쏴 죽이고 호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호철 어머니는 자기 가슴에서 《조선 독립 만세!》 라고 수 놓은 붉은 보자기에 싼 권총을 빨찌산 녀대원에게 주면서 《이것을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운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호철은 이 일을 알 리 없었다.

그는 밭에서 돌아 오자 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 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

이리 저리 찾다가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 놓고 가물거리는 석유등 밑에서 자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문을 차고 나섰다. 그리하여 빨찌산이 있음직한 산 속을 헤매였다. 그는 지치고 배가 고팠다. 그가 주린 창자를 안고 어떤 대궐 같은 중국 집 문 앞에 이르렀다.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다. 그러나 그것을 본 그집 주인놈은 사나운 호개를 풀어 놓아 호철을 물게 하였다.

개와 호철과의 육박전이 벌어지고 호철의 몸이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을때 막대끝에 옷을 걸어 개앞에 던져 주는 사나이가 있었다. 개는 호철에게서 떨어져서 사나이가 던진 옷을 찢기 시작한다. 그 순간에 호철은 개에게서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정찰을 나왔던 박 춘이라는 빨찌산 대원이였다. 호철은 그를 따라 아동 혁명단으로 들어갔다.

△ 신입 대원

호철이가 아동 혁명단에서 즐겁게 배우고 놀고 있던 어떤 날 빨찌산 대장이 찾아 왔다. 그는 자기 동무들과 같이 빨찌산 대장에게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은 끝에 자기도 입대시켜 달라고 졸라 보았다.

《나두 싸우겠어요》. 《넌 어려서 안돼》.

이런 말이 있은 뒤 호철은 은근히 결심하였다. (대장이 돌아 갈때 모르게 뒤를 따라 가리라)

호철은 결심대로 하였다. 그는 대장의 뒤를 따라 빨찌산 있는 곳을 알았고 거기서 대장을 만나 입대 승인을 받았다. 호철은 대원들이 있는 곳을 찾아 갔다. 거기서는 밥들을 짓고 있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호철은 반죽 좋게 인사를 하면서 나사 갔다. 그 곳에는 자기를 구원해 준 박 춘이가 있었다.

대원들은 이 어린 신 대원을 친 동생처럼 대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겨울 난머루를 주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어떤 사람은 각반을 벗어 주기도 하여 호철은 잡시간에 귀여운 꼬마 대원이 되였다.

어떤날 호철은 어동 문고 근처를 지나다가 소나무에 써 붙인 글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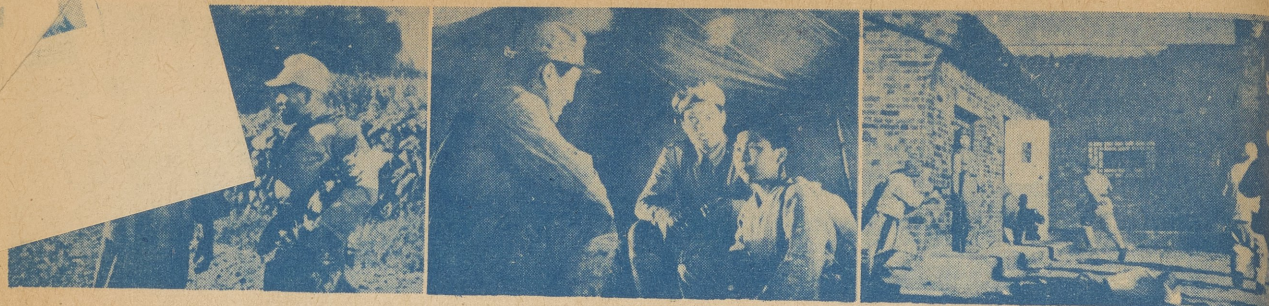
그 글에는 박 춘이가 정찰을 나갔다 강물을 건너 달라고 위협하던 일본 헌병놈을 물에 족쳐 넣고 권총을 뺏어 가지고 돌아 온 이야기가 씌여 있었다.

호철은 그 헌병놈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왜놈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자기가 못 죽인 것이 분하기도 하고 박 춘의 용감성이 마음에 들기도 하였다.

호철이가 박춘의 용감한데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본 녀대원 정순은 자기도 용감한 산람의 이야기를 호철에게 들려 주기도 하였다. 그것이 바로 호철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끝난 정순은 호철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죽은 권총을 꺼냈는데 그것을 싼 보자기에서 어머니가 새기던《조선 독립 만세!》의 글'발을 발견하자 호철은 《어머니!》 하고 소리를 치고 울었다.

울다가 낯을 든 호철의 눈에는 복쑤의 감정이 불 붙는듯 하였다.

그 뒤부터 호철의 놀라운 활동이 벌어졌다. 그는 중국 소년으로 변장하여 산사육, 아가위 동속을 목판에 메고 파는 체하면서 내부도 정찰해 내였고 그것을 습격할 때는 불의에 벼락을 맞고 갈팡 질팡하는 왜놈들을 마음 대로 쏴 넘기기도 하였다.

비가 내리고 물이 고인 개흙땅으로 어려운 행군이 시작되였다. 이것은 유격대 생활에 단련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였다. 호철은 이를 악물고 떨어지지 않았다. 곁에 가던 박 춘은 호철의 배낭을 벗겨 자기가 메려하나 호철은 벗어 주기를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박 춘이가 강제로 벗겨 메였다. 호철은 처음 입대하였을 때 박 춘이가 《이 녀석 혼나 봐라. 나를 다시 학교로 보내 주시요 하지않나》 하고 놀려

◇강물을 건너 달라는 일본 헌병◇

◇정찰에서 돌아온 호철◇

◇왜군의 병영 습격◇

주던 일이 분하였던 것이다. 이런 때에 자기의 힘을 박 춘에게 보여 주려 하였던 것이다.

△ **행군이 끝난 달밤,**

어려운 행군이 끝나고 깊은 숲속에서 야영이 벌어졌다. 대원들은 우등'불을 피여 놓고 그 옆에서 무기도 손질하고 신발도 꿰매고 곤하여 자는 사람들도 있다. 달이 밝은데 두견새가 울어 고향을 생각케 하는 밤이다. 녀대원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호철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길남이가 주던 돌을 만지고 있다.

야영의 달밤은 대원들의 고향 그리워하는 서글픈 심정으로 새고, 그 이틑날은 다시 바쁘고 긴장한 전투 행동이 벌어진다.

호철은 농민으로 가장하고 농촌에 내려가 인민들의 생각을 정찰해 올 임무를 받았다. 그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고 자기들 빨찌산이 오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가도 보았다. 더구나 자기에게 친절하던 보배가 왕 영청에게 끌려 가는 것과 자기 집이 왜놈들 한테 불탄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복쑤심을 누를 수 없었다. 이번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왕 영청과 나까무라의 본영을 치는 싸움이 벌어 졌다. 호철은 그 전투에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원쑤들을 잡은 뒤 보배까지 해방시켰다.

전투가 끝나고 인민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산에 오를 때 그들의 눈앞에는 자나 깨나 그리운 조국의 산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이 바라 보였다.

백두산, 조선의 아버지인 산, 조선 인민의 기상처럼 높고 크고 아름다운 산, 조선 사람은 수천년 동안 그것을 바라 보면서 살았고 그 속에서 피를 흘려 그것을 지켜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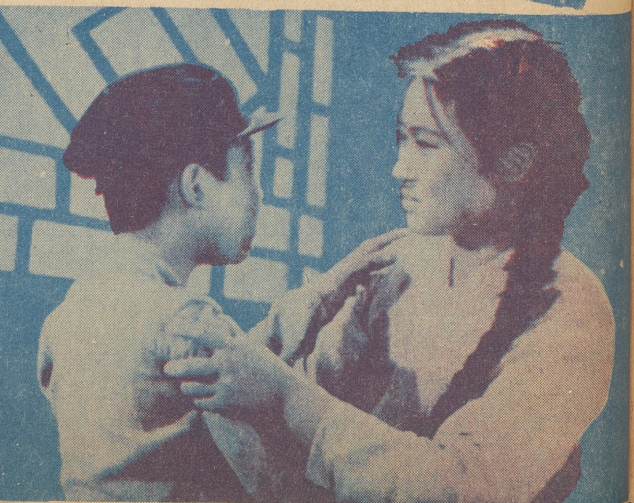
백두산이 보인다. 그리운 조국이 가까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행군이 끝난 달밤 ◇

◇ 왕 영청에게 끌려온 보배 ◇

◇ 호철은 이전투에서도 훌륭히 싸웠다 ◇

◇ 해방시킨 보배를 만난 호철

세째의 이야기

글 리 종근
그림 남 현주

이제는 옛말이 되였다. 그러나 옛 말은 아니다.

청천강 기슭에 있는 피알골이라는 넓은 벌판을 한 놈이 독차지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피알골이라는 이름도 사라진지 오래고 이 마을에서 제밖에 없다던 지주놈이 쫓겨난지도 퍽 오래되였다. 그러나 그때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 피알골에 제 이름으로는 못불리우고《세째》,《막간 사람》으로 불리우던 사람이 있었다. 이 이름은 어른이 되였어도 불리였고 스물두해나 불리였다. 세째는 최 봉제라는 지주놈의 머슴이였다.

그의 동생도 강 건너 녕변에서 김 승지라는 지주놈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다.

하루는 동생이 그립던 자기 형을 찾아 왔다. 세째는 오래 떨어져 있던 동생을 만나서 몹시 반가와 하였다. 동생도 기뻐하였다.

그러나 반가움과 기쁨은 만난 그시 뿐이였다. 동생의 몰골은 말이 아니였다. 헐벗고 굶주려서 얼굴은 부석부석 부었었고 몸에 걸친 것은 옷이랄 수 없었다. 동생이 반가운 목소리로《형님》하고 부르니 동생으로 봤지 딴데로는 알 수 없었다.

세째는 찾아 온 동생이 반갑기는 했으나 자기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여서 겨우 먹던 죽그릇을 동생 앞에 내놓고 먹으라고 권했다.

지주놈은 막간에 웬 사람이 온 것을 눈치 채고 동잔'불도 없어 어둑컴컴한 막간살이'방을 기웃해 보고 대뜸

《흥 배가 부른 수작이구나, 거지까지 불러 들여서 먹이다니 당장 내쫓지 못할가!》하고 불호령을 뺐다.

그러나 세째는 지주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는가 싶어서《아니 올시다. 얘는 제 동생입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빌어 먹으면 다 거지지, 뉘 쌀이라고 네 마음대로 먹이는거냐 그 놈이 우리 집 밥먹고 우리 집'일을 하느냐? 어서 냉큼 내 쫓아!》하고 지주놈은 눈을 부릅뜨는 것이였다.

《어찌 형의 집에 찾아 온 동생을 사람으로서 그냥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세째가 이렇게 도리를 밝혔다가 지주놈께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그 바람에 동생은 선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주놈은 자기 땅을 부치는 소작살이나 막간 살이 농민들에게서 긁어 먹을 대로

굶어 쳐 먹고도 이 지랄이였다.

봄내 여름내 피땀을 흘리며 허리 굽도록 농사를 지어도 가을이 되면 땅 부친 값이요, 소 빌린 값이요, 꿔 먹은 쌀 빚이요, 종자 값이요 하고 금싸래기 같은 낟알을 지주놈이 몽땅 빼앗아 갔다. 그래서 농민들은 마당질 한 뒤에 비'자루만 털고 돌아 서는 것이 일수였다.

한해 농사를 피땀으로 지어도 제쌀로 설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였다. 비싼 값으로 낟알을 꿔 먹으니 빚도 늘고 굶는 날도 늘어만 갔다.

지주놈을 위해서 하는 일은 농사 짓는 것 뿐이 아니였다. 지주네 온갖 집'일도 거저 해 줘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세째는 최 봉제 지주놈의 막간에 사는 머슴이여서 앉아 볼 사이조차 없었다. 밤마다 벌어지는 술놀이 심부름도 밤새껏 해야 했다.

일본놈 순사들이니 면장이니 하는 놈들이 쓸어 든 어느 날 겨울 밤이였다.

세째는 아침 죽 한 그릇 얻어 먹고 진종일 지주 집 마당질에 몸이 지쳐 저녁도 굶은 채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꼬꾸라져 자고 있었다.

《주인》집 아들이 찾기에 나가 보았더니 숱한 놈들이 모여 술을 쳐 먹고 있었다.

《돼지 같은 놈! 먹고는 잠만 자다니 초저녁부터》. 술'기 오른 지주놈은 씨근덕거리며 다짜고짜로 욕지거리를 퍼 부으며 술을 더 받아 오라고 불호령을 했다.

날씨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맵짠 강'바람이 살을 어이는듯 했다. 옷도 변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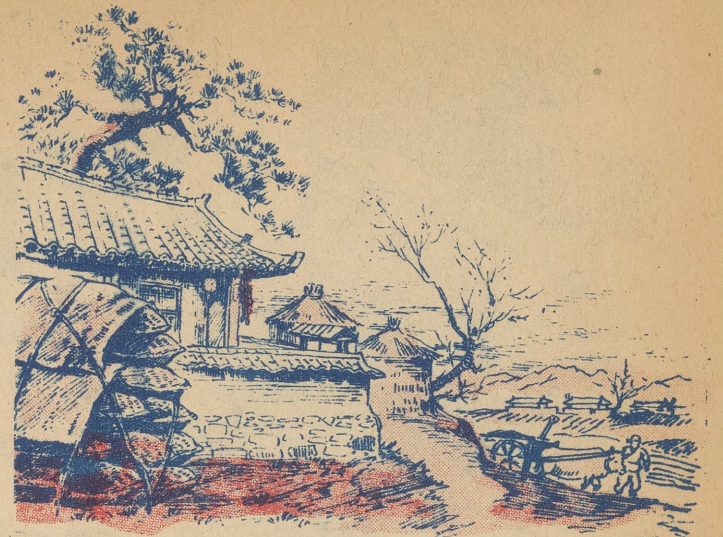
입지 못했으나 분부를 어기면 막간 살이마저 내쫓기울 판이니 세째는 울분을 꾹 참고 서창'골로 술 사러 떠났다.

눈보라에 덮인 길을 찾아 헤매다간 웅뎅이에 빠져 뒹굴고 손발이 떨어질듯 얼어 들어도 세째는 이 밤'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도 지주놈은 수고했다는 말은 없이 《이놈 거북의 고기 먹었나? 늦어도 분수가 있지… 왜 술은 이렇게 곯았어? 얼굴이 시뻘건걸 보니 마신게로구나 잉, 이 괘씸한 놈》 하고 욕지거리였다. 그것으로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빨리 술을 데워 오라고 호통이였다.

주인집 부엌에는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 자기 집에는 나무가 없지, 이 술을 어데 가서 데워 오는가? 하는 수 없이 세째는 어머니와 함께 가슴에 술병을 품고 찬 기운을 죽였었다.

……………………………

이제는 옛말이 되였다. 그러나 옛말은 아니다.

개천군 준혁리 봉화 농업 협동 조합 마을 산'등성이에 새로 지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밥 먹고, 전등'불 보고, 웃음 꽃 피우는 준혁 인민 학교 소년단원 차 리섭 동무의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다. 바로 해방전에 있은 일이다.

◇ 오늘 할아버지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사신다 ◇

《막간 사람》, 《세째》라는 이름도 지주놈이 쫓겨가자 사라졌다. 오늘 마을 사람들은 조선 로동당원으로서 모범 협동 조합원으로서 해방 전에 《세째》로 불려 오던 이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

꼬마 박물관

우리는 지난 해까지만 하여도 력사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머리 속에 그려 볼 뿐이였습니다. 우리 학교 대에는 직접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와 뛰여난 재주를 찾아 볼만 한 력사 유물들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박물관을 자주 찾아 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 열성자들은 모임을 열고 우리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옛 문화 유물들을 모아 꼬마 박물관을 만들어서 력사 공부에 리용하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들은 자기 집이나 혹은 친척집, 이웃 할아버지네 집에서 많은 력사 유물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학부형 회의에 오셨다가 우리의 꼬마 박물관을 구경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들도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유물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석기 시대의 유물들과 리조 시기의 당옷, 선비들의 서적, 고구려 시기의 자기, 가구, 신발, 화폐(엽전), 귀걸이 등 230여점을 장만한 훌륭한 꼬마 박물관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리를 넓히는 우리 꼬마 박물관은 우리들의 학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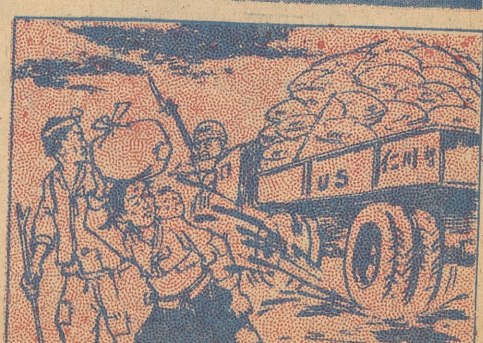
자강도 성간군 제 4 중학교 대
위원장 곽 춘 옥

중국 잡지 《어린동무》에서 옮겨 실음

남조선 농민들의 처지

◇ 미제놈들은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련병장으로 만들었고 ◇

◇ 지은 쌀은 이렇게 저렇게 모두 빼앗아 갔으니 ◇

◇ 평남 개 준혁 인민 4 학 최 운섭 ◇

◇ 농민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게 되였다 ◇

익조를 보호하자!

1. 뻐꾸기

이 새는 산림을 해하는 송충과 기타 털난 벌레들을 잡아 먹으며 한 시간에 100마리 이상 잡아 먹는 때도 있다.

2. 부엉이

이 새는 밤에 활동하면서 주로 들쥐를 잡아 먹는다. 부엉이는 보통 한마리가 1년에 알곡 1톤을 먹을 수 있는 들쥐를 잡아 없앤다.

3. 찌르레기

이 새는 벼를 해하는 명충(대벌레) 벼메뚜기들과 모기등 해충을 잡아 먹으며 새끼를 기르는 동안은 하루에 350마리의 해충을 잡아 없앤다.

4. 제비

이 새는 한 쌍이 1년에 두번 새끼를 치는 동안 농작물에 해를 주는 각종 벌레들을 무려 100만 마리 이상 잡아 없앤다.

5. 딱따구리

나무의 의사라고도 불리우는 이 새는 나무를 좀먹는 나무좀과 진두물, 털벌레 등을 잡아 먹는다.

편집 위원 김 수현(주필) 김 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3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7년 3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3 호 총(90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336 값 25 원 65,000부 발행

산과 들을
푸른 락원으로!